

2022 01 Vol. 379
<http://cafe.daum.net/ocdskr>

가르멜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The Secular Order of Discalced Carmelites of Korea

글, 사진 : 김영문(성령의 브루노) 신부
광주 수도원

약 속



구름 덮인 날에도
눈 비가 내리는 날에도
해는 삼백예순다섯 번 뜬다

환한 아침이 두렵고 반가운
시한부(時限附)의 긴박함으로
넘어지면 땅을 짚고
흔들리면 벽을 기대며
곳곳한 하루 어두워질 때까지
매일 날짜 시간을 재며 간다

사계절 아름다운 열두고개
마지막 머무는 365종착지까지
뜨겁고 치열하게 걸어간다

CONTENTS

- 02 갤러리 / 김영문(브루노) 신부
약속
- 03 차례
- 04 권두언 / 함께 걸어가는 여정
- 07 웅달샘 / 박종인(라이문도) 신부
예수님 성모님 안에서의 이웃사랑
- 08 수도회 역사 /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60)
- 12 영성 / 신호준(마리오) 신부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11)
- 16 자서전 연구 /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옮김
성녀 데레사의 자서전 해설(33)
- 21 성소 / 성소 위원회
가르멜로 74-55길
- 22 예수의 성녀 데레사 시 / 김석영(요셉) 수사
구세주 나시다
- 24 기억 / 양상룡(도미니코) 신부
약지 못하고 순수하셨던 대주교님의 옛 시절
- 26 순례기 / 윤원조(리드비나)
18일간의 숨바꼭질(7)
- 30 공동체 이야기
최초의 부산 가르멜 재속회
- 33 회원의 글 / 김순상(베로니카)
나와 다른 너, 어제와 다른 내일
- 36 귀향의 노래 / 안병희(젬마)
안인호 성삼의 마리스텔라 생애
- 40 하느님의 포도밭 일기 / 박지현(요셉피나)
선택하는 삶
- 42 추모글 / 서울 성 엘리야 공동체 참사회
이상호 안드레아님을 기리며
- 43 회원의 글 / 이미돌(데레사)
침묵의 언어
- 44 구역모임 영적독서 자료(234)
2022년 3월 영적나눔
- 46 비둘기
- 50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서울 대교구
교구장 착좌를 축하드립니다
- 52 그림단상

표지그림

당신 이름 어이 이리 묘하신고 (Ps. 8.2)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느
님의 놀라우신 신비를 표현함
(신호준 하느님 사랑의 마리오 作)

* 2021년 <기억-신호준 마리오 박보규 가브리
엘 2인전> 전시작품

발행인: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통권 제379호 (2022 1. 1) 가르멜 수도회 관구장: 김형신 이나시오 신부

주소: 03079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6길 8-8 (가르멜 관구 수도원 내) 전화: 010-4460-0713

카페: <http://cafe.daum.net/ocdskr>

계좌: 우리 1006-101-537099,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 가르멜 수도회 관구 재속회 CARMELITE ORDER

* 권두언 *

함께 걸어가는 여정

김형신(예수의 이냐시오) 신부/ 가르멜 수도회 관구장

찬미 예수님!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더욱 영육 간에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가 저의 관구장이라는 직책의 3년 임기의 마지막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작과 아름다운 결실이라는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시작과 마침이 공존하는 올 한해가 저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특별함은 저뿐만 아니라 각 단위 공동체의 참사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생각되어집니다. 부디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어, 좋은 결실을 거두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각 공동체 사목 방문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데레사 카리스마 선언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저희 남자 가르멜 수도회는 로마에서 제92차 가르멜 수도회 총회를 가졌고, 이 총회 안에서 ‘데레사 카리스마 선언문’에 대한 승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데레사 카리스마 선언문’은 우리가 가르멜의 본질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르멜인’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가르멜인으로서 사는 것인지, 우리 삶의 지침서가 되어주고 안내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데레사적 카리스마’를 따라 산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레사적 카리스마’는 가르멜인의 삶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령께서 영적인 숨을 불어 넣어 주시어, 성령의 기운을 받아 살아가듯이, ‘데레사적 카리스마’는 우리 영혼 안에 창립자이신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정신과 이상을 새겨주고, 더불어 사부이신 십자가의 성 요한을 비롯하여 가르멜의 수많은 성인들의 가르침과 그분들께서 지니셨던 가르멜적인 삶의 자세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 마음 안에 지니고 있는 ‘가르멜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하느님 사랑에로의 불타는 열정을 심어 줄 것입니다. ‘데레사적 카리스마’가 ‘가르멜인’의 영혼이고 정신이자 생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태까지 영혼이 없는 ‘가르멜인’으로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르멜인’으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있는 힘껏 기도하시면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데레사 카리스마 선언문’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들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과연 나는 데레사의 카리스마에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성찰과 더불어 새롭게 자신을 쇄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쇄신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 삶의 풍요로움을 재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 가르멜의 모든 성인들께서 교회 안에 남겨주신 보석과 같은 영

성적인 가르침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가르멜의 후손들은 이런 풍부한 영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참으로 '복 받은 후손'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이런 황금 같은 유산을 잔뜩 쌓아두고, 그저 바라만 보면서 흐뭇해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영성적 유산들을 읽고, 연구해야 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그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제로 영적 유산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멜인' 으로서의 정체성은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르멜 선조들은 하느님을 찾기 위해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자신들을 끝없이 낮추시면서 '하느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으시면서 무한히 펼쳐진 침묵과 고독의 공간 속에서 하느님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으로 기꺼이 자신들의 영혼을 태우고자 하는 굳은 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우리 삶의 흔적들을 다시 돌이켜 봅시다. 과연 가르멜 선조들의 그 뜨겁고도 치열했던 역사의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는지 말입니다. 하느님을 찾고자 했던 그 애절하고도 간절한 마음, 숨이 멎을 정도로 펼쳐지는 신적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했던 마음, 하느님 사랑에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에 이르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던 강인한 마음이 우리 삶의 발자취에 남아있고, 삶의 향기로 함께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까? Solo Dios Basta! 이 강렬한 외침이 얼마나 큰 울림으로 우리의 내면을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까?

'데레사 카리스마 선언문' 은 마치 자신을 비취주는 반성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 거울을 뚜렷하게 응시하기보다는 부끄러움과 뉘우침의 시선으로 슬며시 바라보는 경

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이 아직은 딱딱하게 굳어있지 않았다는 표시이기도 하니 그렇게 슬퍼할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카리스마는 교회의 선익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나누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나만의 것' 이 아닌 '우리의 것' 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나눔' 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누어 주는 것도 풍성할 때에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받는 이도 흐뭇한 마음으로 받을 것입니다. 빈약하면서도 나누어 줄 것이 있다고 장담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남에게 보여주는 삶을 산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풍요롭고 복되게 해 줄 수 있는 길은 결코 물질적인 행복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르멜인' 으로서 가르멜적인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정립해 나갈 때 비로소 '가르멜' 이라는 토양에서 양분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풍요로움이야말로 진정 하느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데레사 카리스마 선언문' 은 마치 여러분의 영적인 토양에 뿌려주는 거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 거름을 여러분들의 삶과 잘 혼합되도록 비벼줘야 하고, 그 삶의 토양에 성덕(聖德)의 씨앗들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카리스마는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 '함께' 라는 의미 속에는 공동 책임감, 상호 협력, 상호 경청, 친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이 카리스마는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개최하신 세계 주교 시노드의 주제가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

입니다. '시노드'의 뜻은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교회와 함께 걸어갑니다. '데레사적 카리스마'를 통해 교회에 더욱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교회와 함께 언제나 호흡을 맞추면서 걸어갈 것입니다. 이 여정 안에서 우리 역시 '가르멜 가족'으로서 일치되어야 합니다. 지난 총회 때 사베리오 전임 총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남, 녀 가르멜 수도 가족과 가르멜 재속회 가족 모두는

'데레사적 카리스마'를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하나의 카리스마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장점이지만, 이 장점을 살리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올 한해 영적인 농사가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기를 빕니다.*

* 글 쓰는 수방 *



질은 어둠을 밝은 빛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지고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누추한 마구간을 마다않고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 되어 오신 참 하느님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아기 예수님께서서는 화려한 궁전도 아니고 많은 이들의 주목받는 자리가 아닌 가난하고 겸손한 영혼에게 찾아오십니다. 연약한 아기로 오시는 사랑의 하느님을 받아 모시기 위해서 우리 역시 작고 가난한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멍하니 존재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나 자신을 기쁘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하는 전례적 기념을 넘어서 매년 반복하는 전례적 탄생을 넘어서 우리 안에 새롭게 아기 예수님을 낳아드리기 위해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먼저 사랑의 숨이불을 내 영혼 가장 깊은 중심에 켜놓는 또 다른 작은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김광서(삼위일체의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옹달샘 *

예수님 성모님 안에서의 이웃 사랑

박종인(예수의 라이문도) 신부/ 인천 수도권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남겨 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마태 18,12-13)라고 하셨습니다.

길을 잃은 그 한 마리가 바로 ‘나’ 라고 생각할 때 나는 얼마나 큰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를 위해서 뿐 아니라, 나 하나를 위해서도 몇 번이고 십자가 위에서 기쁘게 고통을 참아 받으시면서 돌아가실 것이라고, 알폰소 성인께서는, 가톨릭 신자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교구(敎區) 하나가 설정될 만하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마태 18, 14)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1티모 2,4)

이탈리아에서는 어떤 아이들이 서로 싸울 때, 한 부인이 나서서 “얘야, 그 애도 엄마 젖을 먹고 자랐단다.” 하면 곧 서로 떨어져서 싸움을 그친다고 합니다.

성모님은 육신적으로 우리를 낳으시지는 않으셨지만 영신적으로는 우리의 참 어머니입니다. 그리스도 신비체(The mystical body of Christ)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성모님께서서는 그 지체(肢體)인 우리도 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모 마리아는 우리의 참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있는 제자를 보시고 먼저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시면서 요한 사도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제자에게는 “이 분이 네 어머니입니다” 라고 하시며 성모님을 가리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 사도에게 성모님을 어머니로 주셨듯이, 우리 신자들의 어머니로 주신 것입니다. (요한 19,26-27 참조)

우리 각자는 성모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성모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성모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귀염을 받는 자녀인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똑같이 성모님의 품 안에 안긴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참 형제자매로, 예수님과 성모님 안에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흠족해하시고 기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사모 데레사 성녀 자서전 40,1 참조)*

* 수도회 역사 *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 (60)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 인천 수도원

3. 페루 총독부에서 맨발 가르멜 (계속)

페루에서 가르멜 수도원들의 창립은 천주 모친의 미겔(Miguel de la Madre de Dios) 신부 덕분이다. 그가 남겨준 자필 원고에는 1687년부터 1705년 사이에 여러 가르멜 회원들이 스페인을 떠나 페루에 가기 위해 거쳤던 험난한 여정을 비롯해 그들이 페루의 라타쿱가(Latacunga), 리마(Lima), 포파얀(Popayán), 키토(Quito)에서 했던 창립에 대해 전하고 있다. 1687년 9월 3일 스페인 카디츠의 바이아(Bahía)에서는 5명의 가르멜 수사들로 구성된 선교사 그룹이 온두라스(Honduras)를 향해 출항해서 그해 11월 19일 그곳에 도착했다. 이들은 다시 육로를 거쳐 며칠간 힘겨운 여행을 해서 마침내 비야데손소네테(Villa de Sonsonete)에 도착했다. 이미 그곳에는 멕시코에서 온 4명의 가르멜 수사들이 있었다. 두 그룹은 합류해서 1688년 10월 2일 왕립 법원(Audiencia Real)을 향해 떠나 약 3주간의 여행을 거쳐 10월 25일 과야스(Guayas)의 산타 엘레나에 있는 왕립 법원에 도착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여행을 떠나 1688년 11월 18일 최종 목적지인 라타쿱가에 도착했다.

1) 키토의 왕립 법원에 도착 그리고 라타쿱가 수도원 창립

라타쿱가에 도착한 가르멜 수사 일행은 그곳 군대의 지휘관인 돈 호세 데 라 마타(D. José de la Mata)의 관대함 덕분에 라

타쿱가 가르멜 수도원을 창립할 수 있었다. 이 수도원은 장차 페루 지역 전체에 많은 수도원을 창립하게 될 모원(母院)이자 수련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곳에 수도원을 창립한 일행 가운데 4명의 수사들은 키토로 갔다. 그들은 그곳의 도미니코회 소속 막시모 수도원에 유숙했는데, 여기서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인 탄생의 프란치스코(Francisco de la Natividad)는 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들은 키토에서 처음으로 큰 난관에 부딪혔다. 당시 그곳에 파견된 스페인 국왕의 사절은 왕립 법원장과 주교에게 그 지역에 수도원을 설립하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했다. 그에 따르면, 수도 공동체 회원의 수는 12명 이상이어야 하며 회원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집과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곳에 온 가르멜 수사들은 이 조건에 맞춰서 수도원을 창립할 여력이 없었다. 당시 이처럼 까다로운 설립 조건을 들은 가르멜 수사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들은 키토에 수도원 설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그들은 스페인의 장상들이 7명의 수사들로 구성된 새로운 그룹을 파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그들은 창립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며 새로 파견된 7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창립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마련해서 다시 창립을 시도했다. 그들은 라타쿱가에서 집을 빌려 수도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으며 1690년 임시 수도원을 개원했다. 이렇게 해서 서서히 수도원을

지어갔다. 그러나 1698년 6월 20일 상당히 큰 지진이 일어나 라타쿱가 도시 전체가 거의 파괴되었으며, 안타깝게도 수도원 역시 폐허가 되고 말았다.

2) 리마와 포파얀에서 수도원 창립

리마의 몇몇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신심 깊은 사람들이 라타쿱가에서의 가르멜 수도원 창립 소식을 듣자, 이들은 리마에서도 수도원이 창립되기를 바라며 라타쿱가 수도원으로 사람들을 보내 창립 요청을 했다. 이에 라타쿱가 수도원에서는 4명의 수사(성 엘리야의 디에고 수사, 천주 모친의 미겔 수사, 정화의 프란치스코 수사, 성 프란치스코의 호세 수사)를 보내 창립을 시도했다. 이들은 1689년 11월 17일 라타쿱가를 출발해서 경유지인 툼베스에 도착했으며, 다시 그곳에서 12월 17일에 출발해서 1690년 3월 20일 리마에 도착했으며, 그달에 기적의 주님 은둔소에 수도원을 창립했다. 오랜 역사의 부침을 거치며 현재 이 수도원은 가르멜 수녀원으로 사용 중이다. 같은 해에 가르멜 수사들(성녀 데레사의 미겔 수사, 승천의 크리스토팔 수사, 예수의 프란치스코 수사, 성 마리아 호세 수사)은 포파얀의 벨렌 은둔소에 수도원을 창립했다. 또한, 이 당시 수사들은 키토에 거주할 집을 마련했다. 그러나 성당은 갖추지 못했다.

3) 창립에서의 어려움과 증지

그러나 이렇게 창립된 수도원들은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주위 환경에서 오는 다양한 도전으로 인해 규칙을 지키기 쉽지 않았으며 페루 출신의 많은 성소자들은 성소에 항구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비율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수도 공동체들이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류가 활발하지 못해, 다양한 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더욱이 1698년에 있었던 큰 지진으로 인해 수도원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말았다. 결국 1600년대 말에 이 수도원들은 폐쇄되어갔다. 그러다가 1705년 새롭게 창립의 불이 일어났다. 키토에서 마르틴 신부를 중심으로 페루 출신의 성소자 3명이 서원을 해서 함께 공동체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마지막 시도마저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이 공동체를 마지막으로 페루에서 남자 가르멜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으며, 이 상황은 20세기까지 이어졌다. 20세기에 와서야 가르멜은 비로소 페루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4. 17세기 브라질에서의 남자 가르멜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브라질은 상대적으로 빨리 맨발 가르멜에 대해 알게 되었다. 17세기에 포르투갈의 성 필립보 관구가 페르남부코(Pernambuco) 수도원과 바이아(Bahia) 수도원을 설립하면서 이 광활한 지역에 가르멜의 카리스마를 전파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시 맨발 가르멜 수사들의 삶에 대해 깊은 감탄과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던 포르투갈의 국왕 알폰소 6세는 1665년 2월 6일 바이아 수도원의 창립을 승인했다. 이에 성령의 호세(José del Espiritu Santo) 신부를 리더로 한 일단의 가르멜 수사들은 그해 8월 15일 리스본에서 배를 타고 2달간의 항해 끝에 10월 14일 브라질에 도착했다.

이 밖에도 포르투갈 관구는 올린다 수도원(Olinda, 1686), 레치페 수도원(Recife, 1698), 리우데자네이루 수도원(Rio de Janeiro, 1714)을 설립했다. 이 수도원들은 브라질 교회에서는 기존의 원 가르멜과

구별하기 위해 맨발 가르멜 대신 '데레사 가르멜'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18세기 중반으로 접어들어 가르멜 수사들은 포르투알레그리(Porto Alegre)까지 진출하며 히우그란지두술(Rio Grande do Sul) 지역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했다. 당시 포르투갈의 국왕인 주앙 5세는 1747년부터 아소레스와 마데이라의 여러 섬에서 이 지역으로 주민을 이주시켜 이 지역이 발전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또한 그로부터 3년 전인 1741년 맨발 가르멜 출신인 리우데자네이루의 주교 십자가의 후안(Juan de la Cruz)은 하쿠비(Jacuby), 카이(Cahy), 시노스(Sinos), 과이바(Guahyba) 같은 해안 지역에 가르멜 수사들을 선교사로 파견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

브라질에서는 17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맨발 가르멜 출신으로 다음과 같은 5명의 주교를 배출했다:

- 성녀 데레사의 루이스: 올린다 교구의 제7대 교구장, 1738-1754년 재위
- 십자가의 후안: 리우데자네이루 교구의 제5대 교구장, 1740-1745년 재위
- 성녀 아네스의 마누엘: 루안다의 주교, 바이아 대주교, 1759-1770년 재위
- 아기 예수의 호세: 산루이스데마라노의 주교, +1780년
- 무염시태의 지롤라모: 브라질 주재 교황 대사, 1892-1895년 재위

그러나 브라질에서 일어난 이러한 맨발 가르멜의 발전은 1834년 포르투갈에서 일어난 혁명과 교회 재산 몰수로 인해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약 100년간 브

라질 가르멜은 침체기로 접어들었으며, 그 후 1911년에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다.

5. 그밖에 남미 지역에서 남자 가르멜

스페인이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남미 지역에서 식민 통치를 하던 시절, 맨발 가르멜은 여러 저명한 주교들을 배출해서 성녀 데레사의 카리스마를 널리 전했다. 다음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다:

- 성 알베르토의 호세 안토니오: 투크만의 코르도바와 라플라타의 주교, 1801년에 임종. 그는 아르헨티나의 코르도바에 교육과 사회 증진을 목적으로 가르멜 영성을 바탕으로 한 첫 번째 사도직 수도회를 설립했다.
- 동정 성모의 후안 안토니오: 그는 살라망카 대학과 알칼라 대학에서 시민법과 교회법을 공부한 후 카스티야 관구에 입회해서 양성을 받고 서원했다. 과달라하라 대학의 문예학부와 알칼라 대학의 신학부에서 가르쳤다. 툴레도 수도원과 마드리드 수도원의 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 후, 교황청에서는 그를 툴레도 시노드의 심사관이자 검사관으로 임명했다. 이어서 1792년 당시 교황은 그를 카라카스(Caracas)의 주교로 임명했다. 그는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며 사목을 했으며, 1798년에 알메이라 교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교구장으로 착좌하기 바로 전인 1800년 1월 28일 무르시아(Murcia) 수도원에서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6. 19-20세기 라틴 아메리카에서 맨발 가르멜의 확장

지금까지 우리는 17-18세기 라틴 아메리카에서 남자 맨발 가르멜의 정착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멕시코에서는 가르멜의 카리스마가 깊이 뿌리내렸으며 많은 정치적인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라났다. 그러나 멕시코를 제외하고 라틴 아메리카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가르멜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소멸해갔다. 그 후, 이 지역에서는 20세기 들어와 새로운 부흥의 기회를 맞게 된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가르멜의 카리스마를 뿌려준 모태인 스페인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이태리 맨발 가르멜에 의해 가르멜이 복원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렇게 복원된 스페인 가르멜의 여러 관구는 선교적인 카리스마로 충만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라틴 아메리카에 보내기 시작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19세기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르멜의 복원은 스페인 가르멜의 복원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을 알게 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러한 가르멜의 복원에는 이미 여러 나라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던 가르멜 수녀들의 역할이 주효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콜롬비아, 칠레, 페루, 에쿠아도르의 가르멜 수녀들이 남자 가르멜의 복원을 간절히 열망하며 이를 위해 다양하게 시도했다. 또한, 많은 주교들이 재속 사제들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가르멜 수도회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청했다. 여기에 더해, 스페인 가르멜의 장상들은 세속 정부로부터 또 다른 교회 박해와 이로 인한 수도회 퇴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로 인해, 스페인 가르멜 회원들은 그럴 경우를 대비해 피신할 수 있는 여러 수도원을 마련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난국의 시대에 젊은 회원들이 자칫 징집되어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라틴 아메리카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당시

젊은 수사들은 군 복무 대신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일정 기간 노동을 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었다.

1) 쿠바에의 창립

스페인에서 다시 가르멜을 복원한 가르멜 회원들은 당시 스페인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1879년부터 라틴 아메리카에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관구는 나바라 관구였다. 나바라 관구는 마르키나 수도원을 중심으로 스페인에 가르멜을 복원해서 구성된 첫 번째 관구였다. 이렇게 파견된 선교사들을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수도원 창립을 위해 적합한 지역들을 물색했다. 이들은 처음에 푸에르토리코에서 물색했지만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했다. 이에 그들은 하바나(Habana)로 갔다. 그곳의 교구장인 라몬 페르난데스 피에롤라(Ramón Fernández Piérola)와 교구민들은 가르멜 수사들을 환대했다. 이들은 1880년 12월 31일 성 아우구스티노 성당에 하바나 수도원을 설립했다. 그로부터 7년 후, 수도 공동체는 산펠리페네리(San Felipe Neri)로 이전해서 새로 등지를 틀었다. 이들은 시간을 두고 가르멜 성모님께 봉헌된 아름다운 성당과 넓은 공간을 지닌 수도원을 지었다. 쿠바에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도, 가르멜 수사들은 계속 그곳을 지키며 신자들의 성화와 복음화에 매진했다.

쿠바에 설립된 두 번째 수도원은 카마퀘이(Camagüey) 수도원이다. 이 수도원은 1884년 10월 10일 메르세데스 성당 곁에 세워졌다. 이 성당과 수도원은 공산혁명 당시 유실되었다. 카마퀘이 수도원에 이어 1894년에는 마탄사스(Matanzas) 수도원이 설립되었다. 이어서 1910년 베다도(Vedado) 수도원이 설립되었다.(20쪽으로)

* 영성 *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11)

마리 보맹-크르와 지음/ 메어리 프랜시스 무니 옮김(영어)
신호준(하느님 사랑의 마리오) 신부 옮김/ 인천 수도원

데레사 도시테 수녀

수도복 착복 이후에, 레오니는 가르멜의 언니 동생들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는 분실되었으나, 그 편지에 대해 데레사가 썼던 답장은 남아있다. 답장은 1894년 5월 20일 주일에 작성된 것이다. 데레사는 답장을 “사랑하는 작은 언니 레오니” 라는 말로 시작했다. 하지만 곧이어 그 말을 “데레사” 로 읽게끔 수정했다. 왜냐하면 레오니가 데레사 도시테 수녀라는 수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난 나의 거룩한 어머니이신 성녀 데레사께서 언니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되셨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서 [작은 가르멜 수녀님(레오니)이라고 적었던 거야.] 바로 그 점이 언니와 나를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깝게 맺어주는 연결고리인 셈이지. 사랑하는 작은 언니, 난 언니에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생각들은 이 지상의 차디찬 언어로는 번역될 수가 없거든. 하지만 언젠가, 우리의 아름다운 고향인 천국에서는, 내가 언니를 바라보면, 언니 내 두 눈 속에서 내가 언니에게 말하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야. 왜냐하면 바로 침묵이 천국에서 거주하는 복된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지.

위한 권리를 얻어야만 해. 곧 우린 고통을 겪어야 하고, 투쟁해야만 하는 거지. 언니의 작은 데레사를 위해서 기도해줘. 난 언니에게 간청해. 작은 데레사가 이 지상의 귀양살이와 허락받았던 천국을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많은 방법들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말이야.

이틀 후에, 데레사는 레오니에게 다음과 같은 짧은 편지를 써 보냈다.

사랑하는 작은 언니, 예수님께서 언니의 마음을 그렇게나 샘이 날 정도로 보살펴주고 계시다니 언니 행운이야. 그분께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내 마음에 상처 입혔다오. 한 번의 눈짓으로, 그대 목덜미의 길 잃은 머리카락 한 올로 내 마음을 사로잡았소”¹⁾ 라고 아가서의 신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니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예수님께선 언니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셔. 난 그걸 알아. 비록 그분께선 여전히 언니 마음속에 자리한 불충실함을 언니가 알아차리도록 내버려두기는 하시지만, 그분께서 지금까지 모아들이신 사랑의 행위는 그러한 불충실함을 넘어선다고 난 확신해.

두 명의 데레사 중에 누가 더 열렬할까? 어느 쪽이든지 모든 행동을 사랑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더 겸손하고, 더 예수님과 일치하면서, 더 충실하겠지!

한편, 우린 그러한 고향에 들어가기

1) 아가 4,9 참조.

오, 우리 둘 다 똑같이 충실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자. 우린 우리 두 눈으로, 머리카락 한 올로도, 곧 가장 큰 것들과 가장 보잘것없는 것들로 예수님께 상처 입혀드렸었지. 가장 보잘것없는 희생일지라도 그분을 거부하지 말자. 왜냐하면 신앙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편하나 좁는 것조차 사랑으로 행하기만 한다면 한 영혼을 회개시킬 수가 있거든. 얼마나 위대한 신비인지!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그런 가치를 부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야. 우리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자.

마르탱 씨의 죽음

마르탱 씨에게 심장 발작이 여러 번 일어났다. 그러한 심장 발작으로 인해 그는 점점 더 쇠약해졌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쳤다. 비록 셸린은 고용인 부부와(여전히 근처 쇼세 거리에서 지내고 있었던) 게렝 가족들이 자기 아버지를 잘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근처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서둘러 미사 참례하러 가는 것 말고는 거의 아버지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

마르탱 씨의 건강상태는 호전되었으며, 1894년 7월 4일에는 마르탱 씨와 셸린이 게렝 집안 식구들과 함께 라 뤼스를 방문했다. 이틀 후, 게렝 씨는 레오니로부터 다소 비판적인 내용의 짧은 편지를 받았는데, 그는 그 편지를 곧바로 가르멜 수녀원의 조카들에게 보내주었다. 7월 7일에는 게렝 부인이 자기 딸 잔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 보냈다. “어제 네 아버지가 레오니로부터 우리 모두를 정말 걱정스럽게 하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단다. 자녀로서의 신뢰와 더불어, 레오니 자기가 겪었던 모

든 시련, 투쟁, 전투를 언급했지. 심지어 그 앤 만약 친절한 장상 수녀님들이 지지 해주지 않았더라면 벌써 우리에게 되돌아왔을 거라고 말하기까지 했단다… (레오니가 써 보낸) 이 모든 내용들은 전혀 마음에 위안이 되지 못하는구나. 과연 레오니가 세상에서 무얼 할 수 있을까? 그 앤 그저 고통을 견뎌내야만 할 거야. 여기서 행복하지 않을 테니 말이야.”

같은 날, 데레사는 라 뤼스에 머물고 있는 셸린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보냈다. “사랑하는 셸린, 우린 레오니 언니의 편지를 받고 정말 많이 당황스러워했어. 레오니 언니가 세상으로 되돌아간다면 정말 불행하게 될 거야! 하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은, 그건 그냥 유혹에 불과할 뿐이라고 내가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지. 우린 레오니 언니를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해야만 해. 하느님께선 레오니 언니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언니에게 주실 수가 있거든.”

1894년 7월 28일, 마르탱 씨에게 또 다른 심장 발작이 일어났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한 사제가 마르탱 씨에게 마지막 예식을 베풀기 위해 다시 파견되었다. 다음 날인 7월 29일 주일 이른 아침에는, 셸린 혼자서만 기력이 쇠한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갑자기 마르탱 씨가 두 눈을 뜨고서는 정말 다정하게 셸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서 그는 영원히 두 눈을 감았다. 그렇게 하여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하느님 그분과 자신에 앞서 떠나갔던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기 위해 평화롭게 영원 속으로 떠나갔던 것이다. 그의 나이 일흔 하나였다.

곧바로 가르멜 수녀원의 가족들은 전보 한 통을 받았으며, 같은 날 셸린은 가르멜의 언니 동생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

지를 적어 보냈다. “아빠는 천국에 계셔. 내가 아빠의 마지막 숨소리를 들었고, 그분의 두 눈을 감겨드렸어. 천국의 행복, 가장 깊은 고요가 아빠의 아름다운 얼굴에 나타났지. 아빠 얼굴이 평온함으로 색칠해져 있었던 거야.”

장례식은 1894년 8월 2일에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거행되었다. 마르탱 씨는 리지외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그곳은 3년 뒤에 그러한 “친애하는 임금님”의 “작은 여왕”이 안장될 가르멜 수녀원의 매장지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몇 주 후인 10월 11일에는 세상을 떠난 마르탱 가족들, 곧 마르탱 부인, 1868년에 선종한 마르탱 부인의 부친 게렝 씨, 1883년에 선종한 마르탱 씨의 모친, 어릴 때 사망한 레오니의 어린 형제자매들인 헬렌, 조제프(요셉), 장 밥티스트(세례자 요한), 멜라니 페레즈의 유해를 알랑송 공동묘지로부터 이장해서 마르탱 씨와 합장했다.

마르탱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며칠 후에, 데레사는 “어느 성인의 아이가 바치는 기도”라는 제목을 붙인 시를 지었다. 그 시에서 데레사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다섯 딸을 기억해주시고 보호해주시라고 청했다. 시의 세 번째 연은 그 당시에 레오니가 방문회 수녀원에서 살고 있었던 사실을 다음과 같이 암시하고 있다.

그 타오르듯 열렬했던 기도를 기억해주세요
당신이 셋째 아이를 위해 봉헌했었던,
하느님께선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아이는, 다른 자매들처럼,
이 지상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백합이에요.
방문회 수녀님들이 그 아이를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감추어버렸지요.
하지만 그 아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평화로 충만해요.
그 아이의 모든 타오르는 갈망과

그 아이의 모든 한숨을
기억해주세요.

레오니가 1895년 7월 20일에 방문회를 떠난 이후, 데레사는 (그 시의) 다섯 번째 줄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그 아이 역시 세상으로부터 이탈하고 싶어 했지요.

셀린의 결심

1894년 8월에, 셀린과 게렝 식구들은 잔과 프란시스 라 넬 (부부와) 함께 캉과 나커 해안가에서 한 주간 동안 머물렀다. 셀린은 날마다 방문회 수녀원으로 레오니를 만나러 갔다. 8월 19일에 셀린은 데레사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미뤄 두었던 수도 성소를 실현하고자,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리지외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라 넬 부부는 그러한 (셀린의) 생각에 맞서서 화를 내면서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셀린이 자신이 했던 결심으로 인해 사망으로부터 마주해야 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관해 데레사가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적어야만 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지상에서 미루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셨던 사랑하는 임금님께서서는 셀린의 혼란스러운 일들을 서둘러 해결해주셨습니다.”

데레사는 셀린의 편지에 대한 답장을 통해, 셀린이 자신의 가르멜 성소를 정립하도록 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8월 20일에 데레사는 레오니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보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천국으로

떠나신 이후로 난 언니에 대해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있어. 언니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고 믿어. 내게 있어 아빠의 죽음은 단순히 어떤 죽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는 것처럼 느껴져. 돌아가신 지 6년이나 지났는데도, 난 아빠의 존재를 다시금 알아차리고 있거든. 난 아빠가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면서 보호해주고 계시다고 느껴.

사랑하는 작은 언니, 우리가 예전보다 더 일치하고 있지 않은 걸까? 이제 우린 우리를 예수님께 봉헌하셨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기 위해 천국을 바라보아야만 하는데 말이지. 머지않아 두 분의 희망이 실현될 거야.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두 분에게 주셨던 모든 자녀들이 영원히 그분과 하나 될 테니 말이야.

난 셀린이 떠난 것 때문에 언니가 느끼게 될 공허함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 하지만 언니가 우리 주님께 얼마나 관대한지 난 잘 알고 있지. 삶은 덧없이 지나갈 거야. 그런 후에 우린 재회할 수 있겠지. 이번에는 영원히 말이야. 그리고 우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통 받았던 것에 대해 기뻐할 거야.

셀린이 가르멜 수녀원 자매들과 합류하다

1894년 9월 14일에 셀린은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하여 마리, 폴린, 데레사와 재회했다. 셀린은 작은 여동생(데레사)의 제자로서 성면의 마리 수녀가 되었는데, 그 작은 여동생은 자신이 발견했던 믿음과 사랑의 길을 따라 셀린을 열성적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데레사는 레오니가 고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레오니를 예전보다 더 다정하게 대했다. 1894년 10월 11일에, 데레사는 레오니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다.

이제 언니 축일이 내 축일과 같아져서 난 너무 기뻐. 난 15일에 데레사 성녀께서 언니에게 여러 가지 은총을 베풀어주실 거라 확신해. 난 언닐 위해 마가렛 메어리 복녀에게뿐 아니라, 데레사 성녀께도 기도하려고 해. 사랑하는 작은 언니, 우리가 얼마나 언닐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한 희생을 언닐 위해서 봉헌하고 있는지 알았으면 해! 난 언니가 감동받을 거라 믿고 있어. 우리가 언니의 시련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열정이 그렇게나 대단한 거지.

난 사랑하는 방문회 수녀님(레오니)이 시련으로부터 의기양양하게 빠져나와서 어느 날엔가는 모범이 되는 수도자가 될 거라는 크나큰 믿음이 있어. 하느님께선 이미 그 수녀님에게 정말 많은 은총을 허락하셨잖아. 그런데 그 수녀님이 이제 자기의 피난처를 발견한 것 같다고 해서 그분께서 그 수녀님을 저버리실까? 아니 그렇지 않아. 예수님께선 당신의 신부가 홍수처럼 밀어닥치는 유혹에 맞서서 투쟁하는 동안 주무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아주 상냥하게 불러 드리면 그분께서 깨어나실 거야. 그렇게 되면 그분께서 바람과 폭풍우를 가라앉히실 것이고, 다시금 평화로워지겠지.

사랑하는 작은 언니, 언니의 시련에는 기쁨이 따라올 거야, 곧 알게 되겠지. 그러면 나중에, 언넌 언니가 고통 받은 것에 기뻐하게 될 거야.

(다음 호에 계속)

* 자서전 연구 *

성녀 테레사의 『자서전』 해설 (33)

토마스 알바레스 지음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옮김 / 인천 수도원

제24장

성녀 테레사의 영적 진보.

새로운 고해사제. 보르하의 성

프란치스코와의 만남.

첫 번째 황홀경. 사랑하기 위한 자유.

자서전 24장은 지극히 긍정적인 표지를 담고 있는 장이다. 이 점은 본 장의 제목에서 잘 드러난다: “어떻게 영혼이 이익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주님은 늘 더욱더 높은 은혜를 베푸셨는가.” 본 장을 구성하는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에 소개되는 감동적인 일화를 중심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것은 성녀 테레사가 경험한 첫 번째 황홀경의 체험으로, 성녀는 이를 통해 자신의 정감으로부터 해방된다. 이 장에서 소개되는 일련의 일화들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성녀 테레사가 체티나의 디에고(Diego de Cetina)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보고, 그에게서 영성 지도를 받은 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1절).
- 성녀는 두 달 동안 강한 내적 충동들에 저항해 왔다. 이는 체티나 신부가 전해 준 수칙이다(1-2절).
- 프란치스코 신부(이번에는 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그는 미래에 시성될, 보르하의 성 프란치스코 신부를 말한다)²⁾

의 간디아에서 그 지역의 공작인 아버지 보르하의 후안과 어머니 아라곤의 후아나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열 살 무렵에 어머니를 여의었으며 자라면서 당시 최고의 인문주의 사상과 신학 교육을 받았고 1550년 8월 20일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세속에 있을 당시 그는 1529년 카스트로의 레오노르란 아가씨와 결혼을 했으나 1546년 3월 부인을 여의고 말았다. 그로부터 얼마 후 그는 예수회에 입회하게 된다. 뛰어난 학식과 인품으로 인해 그는 수도회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역임하며 많은 활동을 했으며 1565년에는 예수회의 총장에 선임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교황이던 교황 비오 5세의 명에 따라 힘든 몸을 이끌고 포르투갈을 방문한 후 로마로 귀환하는 길에 임종하고 말았다(1572년 9월 30일). 그 후 1672년 그는 시성됐다.

그는 살아생전 성녀와 짝했지만 깊은 관계를 맺었다. 1559년 개신교 신자들이 빌각되어 공개 화형된 후 바야돌리드 종교재판소의 최고 재판관인 빌데스가 공포한 「금서목록」에는 그가 저술한 책도 포함되어 있었다(자 26.5). 당시 이미 성녀는 프란치스코 신부를 알고 있던 상태였다: “간디아의 공작이신 프란치스코(Francisco) 신부님도 계셨는데 그분과는 두 번 만났습니다”(보고 53.3). 성녀와 프란치스코 신부가 일게 된 것은 성녀가 신비 체험을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식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당시인 1557년이다. 성녀는 당시 그 신부와의 만남을 자 24.3에서 이렇게 술회하고 있다: “이즈음 전에 간디아의 공작이시던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이 고장에 왔습니다. 그분은 수년 전에 온갖 것을 다 버리고 예수회에 들어가셨습니다. 제 고해신부님과 앞서 말한 그 신사께서 프란치스코 신부님에게 밀씀하여 제 기도 상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고해신부님은 하느님께서 그분을 은총과 신적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어,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버린 보상을 이승에서 이미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말을 들으시고 나서 프란치스코 신부님은 제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느님의 영이시니 이 이상 저항하는 것은 좋지 못하게 생각되고 여태까지 제가 해온 것도 좋지만 지금부터는 기도할 때 늘 수난의 한 부분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밀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적인 길에 매우 앞서 있어서 제게 구제방법과 권고를 주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크게 위로를 받았으며 그 신사도 제 안에서 일하시는 이가 하느님이라는 밀씀에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할 수 있는 데까지 늘 저를 도와주며 제게 권고를 주셨는데, 이 점에 있어서 그분이 한 일은 정말 큰 것이었습니다.” 성녀는 『자서전』을 쓰면서 실명이 공개되면 본인에게 누가 될까 싶어 대부분의 인물

2) 보르하의 성 프란치스코(Francisco de Borja, 1510-1572) 신부는 예수회원이자 성녀 테레사의 영적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성녀와 비슷한 연배이다. 그는 1510년 10월 28일 빌렌시아 지방

가 아빌라에 도착하자, 성녀는 그에게 자신의 상황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에 그는 이를 다음과 같이 식별하며 성녀에게 말했다: “제 말을 들으시고 나서 프란치스코 신부님은 제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느님의 영이니 이 이상 저항하는 것은 좋지 못하게 생각되고…”(3절). 이어서 다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주님께서 내 영혼을 가져가시면 거기에 저항해서는 안 되고…”(상동). “저는 크게 위로를 받았으며…”(상동).

- 체티나 신부가 아빌라를 떠나게 되자,

을 익명으로 처리했으며 실명을 공개해도 좋을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 이름을 밝혔다. 그중에 한 사람이 이 프란치스코 신부였다. 성녀가 『자서전』을 쓸 당시인 1562-1565년 그는 이미 교황 비오 4세로부터 불림 받아 로마에서 예수회 총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처럼 성녀가 자신의 신비체험을 프란치스코 신부의 영적 체험과 학식을 바탕으로 정당화한 것은 『완덕의 길』에서도 질 드러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익명으로 처리됐다. 성녀의 육성을 들여보자: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내리시는 아주 큰 은혜로서 활동생활과 관상생활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성녀 자신을 암시한다)은 주님께 이 은혜를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도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어느 관상자(보르하의 프란치스코 신부를 지칭한다)에게 물어보았더니,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일 뿐더러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하였다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완.바 31,5). 그러나 성녀는 1578년경 『완덕의 길』 출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손수 익명 처리된 이 부분을 삭제하고 프란치스코 신부의 이름을 집어넣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완덕의 길』 통례도 사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성녀가 수정한 이 부분은 인쇄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1583년 포르투갈의 에보라에서 테우토니오 주교의 노력으로 『완덕의 길』 초판본이 출간될 당시 리스본의 종교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논란의 대상이 됐던 ‘고요의 기도’를 다룬 31장 전체가 출판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성녀의 신비체험에 대한 식별과 관련해서 있었던 프란치스코 신부의 결정적인 개입 이외에도 그는 성녀가 고민하고 있던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성녀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조언과 지지를 바탕으로 성녀는 완.바 40장에서 이 두 주제가 어떻게 영성생활에서 조화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은 프란치스코 신부의 영성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이다(J.M. Garcia Lomas, *Con temor y amor: la fisionomía espiritual de S. Francisco de Borja*, Roma 1979 참조). 성녀와 프란치스코 신부 사이에는 적지 않은 편지가 오갔지만(BMC 19, 78 참조) 우리에게는 한 통의 편지도 전해오지 않는다.

성녀는 고해사제로 프라다노스의 후안 신부(Juan de Prádanos)를 새로운 고해사제로 선택했다. 때는 이미 1555년이였다(4절).

- 프라다노스 신부의 영적 지도 아래 성녀 데레사에게 첫 번째 황홀경이 엄습해 왔다: “저는 아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움직임이 대단했고, 그분은 제 영 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5절).
- 이 은총을 기점으로 성녀 데레사의 애정과 사회관계에 있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6-8절).

1. 여정의 새로운 동반자들

이제 거룩한 신사와 예수회원인 체티나의 디에고 신부에 더해, 무대에 새로운 3명의 인물(보르하의 프란치스코 신부, 우요아의 기오마르 부인, 프라다노스의 후안 신부)이 등장한다. 체티나 신부는 성녀가 속해 있는 지인 그룹에 프란치스코 신부를 소개했다: “이즈음 간디아의 공작이시던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이 고장에 왔습니다. 그분은 수년 전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회에 들어가셨습니다”(3절). 미래에 보르하의 성 프란치스코가 될 이 신부는 카스티야 지방 예수회원들의 관구장으로 아빌라에 왔다. 그는 예수회의 창립자인 로올라의 이냐시오가 파견한 인물이다. 이냐시오는 그로부터 얼마 후인 1556년 세상을 떠났다.

약간의 혼란스러운 휴지기를 보낸 후, 성녀는 알 수 없는 어느 친척의 집에 머물게 됐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후, 성녀는 ‘우요아의 기오마르’라는 아빌라의 이름난 부인과 관계를 맺게 된다.³⁾ 성녀는 그 부

3) 기오마르 부인은 성녀 데레사의 절친한 벗이자 협력자로 성녀는 통상 이 부인의 이름을 ‘요마르(Yomar)’라고 썼으며 『자서전』에서는 그 부인을

익명으로 전하는 가운데 '제 친구', '제 미망인 친구', '하느님의 여종인 미망인'으로 부르곤 했다. 기오마르 부인은 사모라 근교의 토로에서 시의원인 우요아의 베드로와 구스만의 일돈사 부부의 딸로 태어났다. 아빌라 근처의 실로브랄레호의 영주인 돈 프란치스코 다빌라와 결혼해 슬하에 딸 셋을 두었으며 25세가 될 무렵 남편을 여의고 미망인이 됐다. 부인의 딸 가운데 둘은 강생 수녀원에 입회했으며 당시 기오마르 부인의 친자매 하나도 이미 강생 수녀원의 수녀로 살고 있었다. 또한 남은 막내딸도 결혼해서 살다가 미망인이 된 후 1592년에 강생 수녀원으로 입회했다.

강생 수녀원에 두 딸을 두고 있던 기오마르 부인은 수녀원을 왕래하며 자연스럽게 성녀와 친분을 맺었으며 특히 성녀가 신비 체험의 단계로 진입하던 시기(1555년 이후)에 성녀와 절친한 사이였다. 무엇보다 기오마르 부인은 성녀가 첫 번째 맨발 가르멜 수녀원을 창립하고자 하는 생각을 품었을 때, 성녀와 같은 이상을 나누며 성녀에게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자 32,10). 또한 부인은 성녀가 자 16,7에서 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협정을 맺은 다섯 명" 가운데 한 사람이며 성녀가 기도 가운데 받은 신비적 은총으로 혼란스러워할 당시 성녀에게 일칸타라의 베드로 신부를 만나도록 주선해 준 당사자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성녀가 영성생활의 여러 가지 위기를 겪을 때 예수회의 프라다노스 신부를 찾아가 영적 지도를 받도록 권한 사람도 기오마르 부인이었다. 성녀는 바로 이 프라다노스 신부의 지도를 받으며 '영적 약혼'의 은총을 받았다. 성녀의 영적 여정이 절정을 치달을 때 이를 식별해주는 훌륭한 영적 신부들과의 인연을 맺어준 당사자가 바로 기오마르 부인인 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오마르 부인이 성녀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성 요셉 수녀원 창립 과정에서였다. 창립에 호의적이던 관구장 신부가 시민들의 반대에 직면해 허락을 주지 않아 성녀가 곤란에 처하자 기오마르 부인은 그때부터 성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창립이 성사되도록 했다. 우선, 부인은 아빌라의 도미니코회 수도원에 살고 있던 신학자 베드로 이바네스 신부를 찾아가 그로부터 창립을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런 그의 의견 표명으로 성녀의 계획에 반신반의하던 성녀의 벗 실세도의 프란치스코와 가스파르 다사 신부도 창립 과정에 가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인은 수녀원을 위한 부지 구입과 준비를 위해 성녀에게 자금을 지원했으며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친정 어머니(일돈사 부인)의 지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게다가 두 모녀는 수녀원 창립 허가를 받기 위해 1561년 로마 교황청에 청원서를 보내 이듬해인 1562년 2월 7일 허가서를 얻어냈다. 엄밀히 밀해 이 창립 허가서는 성녀 데레사가 아니라 일돈사 부인과 기오마르 부인 앞으로 떨어진 허락이었다. 그래서 1577년 아빌라의 교구장인 일바로 주교가 팔렌시아의 주교로 전임되어 길 당시 성 요셉 수녀원의 법적 관할권을 아빌라의 주교에서 가르멜 수도회로 귀속시켜야 했을 때, 이전(移轉)의 법적인 주체는 성녀 데레사가 아니라 기오마르 부인이었다. 부인은 성녀가 바라던 수녀원의 법적 이전 절차 청원을 받아들여 이 사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한 당사자였다. 이렇듯 기오마르 부인은 성녀의 영성생활 뿐만 아니라 맨발

인의 집에 기거했다. 기오마르 부인은 미망인으로, 그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다. 그 부인은 25세에 남편을 여의었다. 이제 그 부인은 성녀 데레사와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맺게 된다. 기오마르 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다섯 명의 벗"으로 구성된 그룹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그는 첫 번째 맨발 가르멜 수녀원을 창립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성녀는 기오마르 부인의 집에 머물 당시 다음과 같은 시(詩)를 썼다고 회상한 바 있다: "모든 아름다움을 초월하는 / 오, 아름다움이시여!" 이 시는 성녀가 거치던 그 당시의 열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언급한 사제는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체티나 신부를 대신해서 성녀의 영적 지도를 책임질 예수회원이었다. 그는 프라다노스의 후안(Juan de Pradanos) 신부로서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젊은 사제였다(1555년에 프라다노스 신부는 26살이었다). 그는 그로부터 1557년까지 적어도 2년간 성녀 데레사의 고해사제로 성녀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1557년 중병에 걸려 팔로(사모라)의 농장에 있는 기오마르 부인의 장원(莊園)으로 가서 요양을 했다.

다섯 명으로 구성된 작은 그룹 가운데 가장 깊은 우정을 나누며 우정에 항구했던 사람은 성녀 데레사와 기오마르 부인이었다. 본 장을 통해 소개된 일련의 드라마에서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기오마르 부인이었다. 프라다노스 신부는 1597년 말 바야돌리드에서 세상을 떠났다. 본 장의 이야기들은 레온의 루이스(Luis de Leon) 신부가 1588년에 마련한 살라망카 판본에서부터 활자체로 소개되었다.

가르멜의 탄생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부인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성 요셉 수녀원의 창립은 요원했을 것이다. 한 마디로 기오마르 부인은 성 요셉 수녀원 창립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다.

2. 성녀는 왜 강하게 저항했을까?

성녀 데레사에게 있어서 ‘저항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심리적인 저항과 종교적인 저항이 그것이다. 성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주체할 길 없는 경험에 저항하면서, 흑여 속임수에 빠져 그 일의 공범이 되는 것을 피하려 했다(만일 그렇지 않다면, 성녀는 19세기 후반 심리학자들의 진단과 고발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물론, 성녀는 무의식적인 자기 방조에 떨어지지 않았다.

반면, 그의 조언자들은 순전히 종교적인 편견(또는 미신)에 근거해서 신비 현상에 대해 저항하도록 강요했다. 그들은 악마가 일으키는 음흉한 조작을 두려워했으며 성녀가 그런 악마의 장난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다. 심지어 체티나 신부 역시 성녀에게 ‘두 달’이라는 저항의 기간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경험과 권위를 갖춘 보르하의 성 프란치스코가 개입하면서 끝나고 말았다. 성녀 데레사에게는 이런 그의 영적 지도가 상당히 유익했다: “그분은 영적 길에 매우 앞서 있어서 내게 구제방법과 권고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에는 체험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뒤에서 성녀가 다시금 저항하기 위한 힘겨운 시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다른 표지를 수반한다. 특히, 성녀가 체험한 탈혼과 황홀경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려 할 때, 성녀는 창피를 당하지나 않을까 염려하며 겸손된 태도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항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보여준다. 즉, 성녀의 신비 체험들은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또는 은밀한 기대와 열망의 파도의 절정에서 꽃피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성녀와 더불어 교감하고자 한 작용인(作用因)인 하

느님의 업적을 통해 일어난다.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신비 체험들은 성녀의 심리적인 경향이나 자극에 역행해서 일어났다.

3. 애정 문제

성녀 데레사에게 있어서 애정은 진정한 영적인 문제였다. 성녀는 이를 40대에 해결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성녀에게 특별한 신비적 은총이 필요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첫 번째 ‘황홀경’(arrobamiento)이었다.

이는 본 장에서 소개된 작은 드라마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말이다. 요약하자면, 성녀 데레사는 깊은 우정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이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과 마찬가지로 익명의 우정으로 드러난다. 또한, 성녀가 말하는 우정은 의심스러운 우정을 가리키지 않는다. 성녀 스스로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록 그것이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었지만…”(5절).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부연 설명했다: “저는 거기에 꽤 애착해 있었고 그걸 끊는다는 것은 배은망덕 하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상동). 그러나 이런 우정들은 두 가지 부적절함을 내포하고 있었다. 1) 성녀는 지나치게 애정적으로 집착했으며 이로 인해 시간을 잃어버리곤 했다. 2) 또한 성녀는 피치 못하게 애정적으로 분산되면서 내적인 자유를 잃어버렸다.

성녀의 양심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해방에 대한 반복된 요구가 요동치고 있었다. 성녀는 이런 해방을 얻지 못한 채 계속해서 싸웠다고 말한다. 즉, “제가 그토록 수없이 애를 쓰고 가끔 제 건강을 몹시 상할 정도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했던 자유를 주님은 눈 깜빡할 사이에 베푸셨습니다”(8절). 심지어 성녀는 고해신부에게 다음과 같이 따졌다고 한다: “저는 고해신부님께 이런 우정 때문에 하느님을 특

별히 등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끊어서 배은망덕한 자가 되어야 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5절). 그러나 고해신부는 성녀에게 다음과 같이 명했다: “신부님은 이 일을 위하여 며칠간 하느님께 기도드리며 가장 좋은 길을 알려 주시도록 제게 「성령 송가」를 부르길 권하셨습니다”(상동).

그때 성녀에게는 다음과 같은 명령적이면서도 해방하는 말씀과 함께 황홀경이라는 신비적인 은총이 쇄도했다. 처음에 성녀는 당황했다(5절: “저는 아주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는 즉시 성녀에게 완전한 애정적인 해방을 가져다주었다. “주님은 이런 온갖 애착을 끊을 힘과 자유를 주셨습니다”(7절). “당신 여종을 온통 딴 사람처럼 만드신 하느님”(상동).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성녀의 애정에서는 인간적인 사랑에서 기인하는 잡동사니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글을 쓸 당시 성녀는 인간적인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삶 전체를 통해 그 밀도에 있어서나 수에 있어서 성녀가 지인들과 더불어 나누던 인간적인 애정은 성장해갔다. 그러나 이 일이 있는 후, 성녀는 더 이상 그 누구와도 ‘각별한 우정’을 갖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그 우정을 집중했다.

성녀가 받은 애정적인 해방은 통합적이기도 했다. 그 후, 성녀는 오직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여인이 되었다. 성녀는 철저한 사랑과 더불어 그분께 온전히 집중했으며, 그분으로부터 출발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벗으로 향했다. 그러나 성녀는 이 벗들을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수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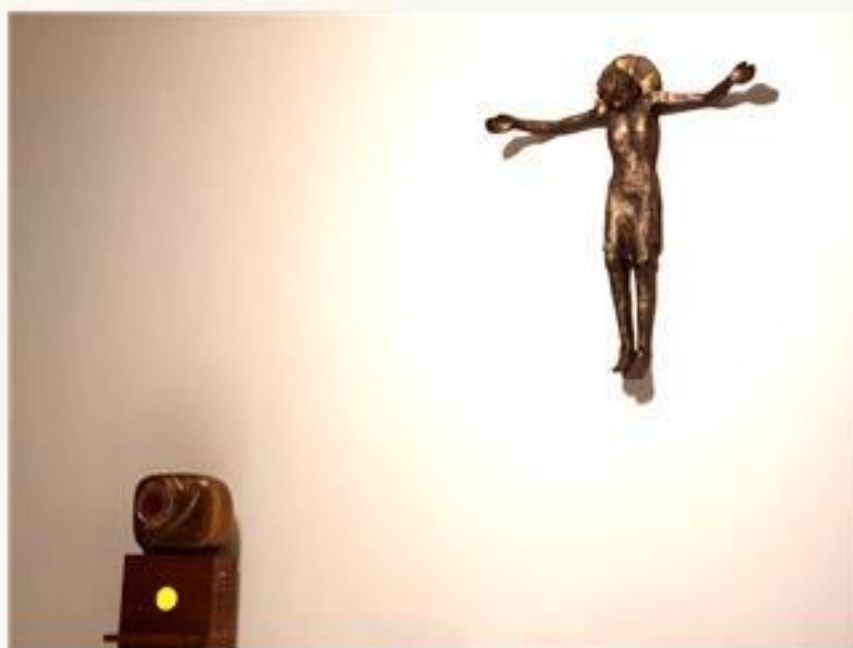
(다음 호에 계속)

(11쪽에서)

1960년 피델 카스트로에 의해 주도된 공산혁명에서 살아남은 맨발 가르멜 수사들은 40명 남짓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고국에서 추방되었으며 일부는 인근 국가들, 특히 멕시코와 도미니코 공화국으로 피신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를 비롯해 푸에르토리코에 여러 수도원들을 세워 가르멜 성소를 이어갔다. 그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쿠바 가르멜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쿠바에 남아 있는 소수의 가르멜 회원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적인 열정을 갖고 수도생활에 매진하며 지역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투신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쿠바 출신 성소자들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도원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공산 치하에서 이 모든 일은 상당히 어려웠으며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도 없었다. 수도회의 행정 구조적인 면에서 보면, 쿠바 가르멜은 카리브 지부에 속한다. 맨발 가르멜은 쿠바 교회에 2명의 주교를 보낸 바 있다. 한 명은 산티아고의 대주교인 승천의 몬시뇰 발렌틴(Mons. Valentín de la Asunción)이고, 다른 한 명은 시엔푸에고스의 주교인 가르멜산 동정녀의 몬시뇰 아우렐리오(Mons. Aurelio de la Virgen del Carmen)이다.

(다음 호에 계속)

* 성소 *



가르멜로 74-55길

가르멜 남자 수도회 성소 위원회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마음이 설레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약속을 했거나, 혹은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 그렇죠. 이런 특별한 순간이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생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별한 순간을 원하고, 찾으면서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기도 하고,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레는 순간이 자주 반복되면 설레는 마음도 점차 작아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이제 익숙해져 가는 것이겠죠.

영적인 여정에서도 그런 일이 참 많죠. 처음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가다가, 점차 조금씩 무뎠어지는 우리의 마음처럼요. 그래서 마음이 무뎠어져 가는 내 모습이 좋지 않게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무뎠어져 가는 내 모습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하죠. 이전에는 설레던 일들이, 그 사람이 더 설레지 않을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그 일을 해나가고 그 사람과 살아가는 것처럼 영적인 여정도 이제 의지로 해나가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나가면서 끝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설레게 했던 것을 포기하고 말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렇게 무뎠어지는 내 모습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결심과 약속을 살아가면 될 뿐입니다.*

성소문의 : 010-2140-7414

facebook: 가르멜로(Carmelo)

instagram: reumelga



* 성인의 시 *



구세주 나시다 Hoy nos viene a Redimir

김석영(예수 마리아의 요셉) 수사/ 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1. 오늘 우리 속량하러
우리 겨레 목동이 오시누나.
<힐>아 천주시란다.
2. 그러기 사탄의 옥에서
우리를 빼내셨단다.
<브라스>와 <멘가>와 <요란떼>의
같은 겨레부치시라니
아, 전능도 하신 천주시로고!
3. 천주실 양이면 어이 팔려
십자가에 못박혀 죽느냐고?
고난 받는 죄 없는 분을
죄악이 죽인 줄을 모르느냐?
<힐>아, 천주는 전능하시니라.
4. 내사 진정
그 나심을 봤노라,
예쁘디예쁜 목녀(牧女)도 보았노라.
그래 천주시라면 하필이며는
가난한 백성을 벗하시냐고?
그 전능하신 줄을
너는 보지 못하느냐?
5. 이런 질문 그만 두고
섬기거나 바로 하자.
죽으려고 오신 님과
같이 죽자 <요렌떼>야
천주님은 전능하시니라.

< 해설 >

우리 교회의 전례력은, 작년 연말에 지낸 구세주 성탄 대축일부터 새해 1월 초순에 지내는 예수공현 대축일에 이어, 2월 2일에 맞이하는 예수봉헌 축일까지를 성탄시기라고 한다. 그래서 몇십 편이나 되는 성녀의 시(詩)들 중에서 <성탄송가>라고 분류된 시 몇 편을 이 기간 동안 계속 소개해 드리고 있다.

이번 달에 올린 <구세주 나시다>는 성녀가 느낀 성탄날 밤의 감격을 꾸밈없이 노래하면서 구세주 강생의 신비를 천민들도 알아듣기 쉽게 표현했다. 이 시는 마치 성탄절을 앞두고 스페인의 시골의 작은 마을 성당에서 막을 올리는 성탄극의 한 장면처럼 정겹게 다가오면서도, 우리 인간의 이성(理性)으로는 알아듣고 받아들이기 힘든 진리, 즉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느님이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이 되신 강생의 신비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우리를 이끈다.

1절에서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고 구원하러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 예수는, 연약하고 무능한 양떼인 우리를 돌보시는 인자하신 목자이고 전능하신 하느님이라고 소개한다.

2절에서 그분은 사탄이 지배하는 감옥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신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느님이시면서도, 성급한 화불쟁이, 용기 없는 겁쟁이, 걸핏하면 울어대는 울보 같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성을 지니신 분이시라고 설명한다.

3절에서 그분이 정녕 하느님이시라면 어떻게 그렇게 무능하게 인간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그분의 신성(神性)을 못 미더워하는데, 그분이 한

점 죄도 없이 그런 수난과 죽음을 받은 것은 최악에 취한 인간들의 악행 때문인 줄을,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느님인 줄을 바보 같은 너는 왜 모르느냐고 안타까워한다.

4절에서 화자(話者)인 성녀는 자신은 진정으로(아마도 깊은 관상 중에) 그분의 탄생하는 광경을 보았고, 젊고 아름다운 목녀(牧女) 같은 성모님도 보았다고 선언하면서, 사람들의 또 다른 의문이나 반론인, 그렇게 고귀하고 거룩하신 하느님이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연약한 아기 모습으로 세상에 올 수 있느냐고 하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느님이시기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5절에서 이제 그런 부질없는 질문은 그만두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공경하면서 섬기기나 잘하자. 그리고 세상에서 죽으려고 오신 그분과 함께 우리도 이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제대로 안 풀린다고 징징거리며 울지만 말고, 세상사 모든 것에 죽은 것처럼 살아가자고 권고하면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느님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은, 세상 어디에서나 서로 어울려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생기는 일처럼, 그 당시 스페인의 시골 마을 목동들의 전통적인 풍습에 따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붙여주던 별명인데, 그 뜻은 대강 이런 의미를 가진 말로 풀이할 수 있다.

<힐 Gil> 멍청이, 바보 (스페인어에서 G는 모음 I 와 E 앞에서는 ħ으로 발음한다.)

<브라스 Bras> 화로, 불덩이, 화불쟁이

<멘가 Menga> 겁쟁이

<요렌테 Yorente> 울보, 징징이*

* 기억 *

약지 못하고 순수하셨던 대주교님의 옛 시절

양상룡(로사리오의 도미니코) 신부/ 중국 선교

정순택 주교님이 서울대교구장으로 임명이 되었다고 발표가 난 며칠 뒤에 평화방송 PD한테서 갑자기 나에게 연락이 왔다. 정순택 대주교님과 서품 동기라는 이유로 그분에 대한 얘기들을 듣고 싶다고 했다.

갑자기 온 전화라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주섬주섬 생각나는 대로 옛날이야기를 하다 보니 거의 30~40 분가량이나 그분의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농담 삼아 했던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고 전화를 끊고 나서는 약간의 불안감이 올라왔다. 아차! 괜히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후회와 함께 혹 평화신문에 주교님에 대해서 누가 되는 글이 올라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나름 무난스런 글이 실렸다.

그리고 대주교님 착좌식에 이해인 수녀님께서 축하 시를 준비하시려는데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고 다른 분을 통해서 그분에 관한 에피소드를 듣고 그분의 성향과 특징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가능한 한 빨리 보내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과 함께...

그래서 마치 숙제를 하는 느낌으로 고민하다 나 혼자보다는 함께 살아본 우리 수사님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대주교님의 성향과 특징을 써서 보냈고 추가로 그분에 대한 에피소드를 보냈었다.

아래는 그때 기억나 써 보냈던 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우리 가르멜 3회 가족들과 함께 정순택 대주교님에 대한 과거의 얘기

를 나누어보고자 한다.

정순택 대주교님의 기본적 성향과 특징을 들라고 하면, 먼저 대주교님은 수도회 규칙에 충실하셨고, 기도와 전례에 또한 성실한 분이셨다.

또한 매사에 열정적이고, 특히 형제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시어 공동체 원장으로 재임 시 형제들의 고민들을 많이 들어주곤 하셨다 한다.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특별하여 수도현의도 성모의 베드로라 지으셨다.

선배와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 또한 매우 각별하셨고 원장으로 재직 시 공동체 형제들에 대해 편견 없는 사랑을 보이셨다.

운동을 매우 좋아하셨고 특히 축구와 탁구를 잘 치셨다. 장기도 잘 두셔서 종종 공동휴식 시간 때 동료, 선후배 수사님들과 장기를 두곤 하셨다. 모남 없이 등글등글하시고 매사 열정적이셨던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정대주교님과 관련된 옛이야기들을 말해보면, 그분이 입회할 당시 지금과는 달리 수사님들이 주방을 책임지셨고 학생수사들은 돌아가면서 주방보조를 했다.

하루는 정베드로 수사가 주방보조를 할 때 주방 담당 요셉 수사님이 음식을 준비하다가 급히 정 베드로 수사에게 “베드로, 빨리 대파 좀 닦아!” 하자 정베드로 수사가 대파를 닦았다. 그러자 주방 책임 수사님이 정베드로 수사를 보고 정색하며 “너 지금 뭐 하는거야!” 하고 묻자 “파

닭고 있는데요.” 대답하며 행주로 대파를 닭고 있었다. 대파를 물로 행구라는 말을 말 그대로 고지식하게 닭으라는 말로 이해하고는 왜 파를 닭아야 하는지 묻지도 않고 그대로 순명하시는 그분의 순수함을 수도권 입회 시부터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주방 일하는 단순한 그분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놀리곤 했다. 어휴 저 둔탁이~

약지 못하고 순수하고 고지식하셨던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또한 30여 년 전인 80년대 당시에 우리는 이발을 서로 돌아가며 부탁하고 깎았는데 실력들이 부족해서 이발이 깔끔하지 못하곤 했다. 그래서 시몬 수사님 매형이 이발사라 하루는 수도원을 방문해서 이발 기술을 수사님들께 가르쳐주고 갔다.

정베드로 수사도 이발법을 배운 수사들 중의 하나였는데 자기 머리를 맡기는 수도권 손님이 없어서 개점휴업 상태였다. 그래서 내가 희생자가 될 각오로 이발을 부탁했다. 그런데 보통은 길어야 1시간 정도면 끝나야 할 이발이 내가 자기 첫손님이라 긴장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가 잘못 깎아서 나에게 민폐를 줄까 두려웠는지 이발을 하는데 아주 조금씩 깎다가 보니 일요일 점심 먹고 나서 1시 반에 시작한 이발이 두 번의 휴식 시간을 거쳐서 무려 3시간 반이 지난 오후 5시에야 마무리되었다. 난 대충 빨리 깎아 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음에도 그리 오래 걸렸다.

이후론 다시는 정베드로 수사한테 이발을 부탁하지 않았을뿐더러 이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서 나 포함 그 어떤 손님도 없어서 다시 개점휴업을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조금의 누와 피해도 끼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머리 모습을 별로 개의치 않는 내게 있어서는 일요일 오후를 아깝게 소비한 그게 더 큰 민폐였다. 남을

위해 아낌없이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시고 남들에게 조그만 피해도 주지 않으려 하셨던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80년대 중반 이후 서울 가톨릭대학교에서는 통학생들 즉 남녀 수도회 신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이 늘어난 교구 신학생들로 인해서 신학교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못하고 교외 일반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와 오후 수업을 들어야 했다.

점심때 신학교 통학생들이 주로 가는 밥집은 몇 곳이 정해져 있어서 대개는 그곳에서 함께 공부하는 수사, 수녀, 일반 남녀학생들을 보곤 한다.

하지만 빵을 사랑했던 정빵, 양빵, 윤빵 가르멜의 삼빵 트리오는 밥집 대신 종종 혜화동 로터리에 있던 크라운 제과점에서 수도원에서 준 밥값으로 곰보빵 두 개와 우유한 잔을 사서 아껴 먹으며 점심 식사를 대신하곤 했다. 우리의 지론은 이랬다. 당시는 수도원에 간식이 귀하던 시절이라 특별한 날이 아니면 제과점 빵을 먹을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아침, 저녁을 수도원에서 날마다 밥을 먹는데 왜 아까운 점심값으로 밥을 사 먹는가? 맛있는 빵을 사 먹어야지! 그래서 당시 같이 수학했던 통학생들이 우리의 이름은 잊어도 정빵, 양빵, 윤빵 수사님은 기억한다는 설이 있다. 빵을 사랑했던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이젠 가르멜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 모든 이에게 맛난 빵이 되어주시며, 그간 갈고 닭으신 영성과 기도, 사랑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것이다.

성모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현의에 담아 살아오신 날들의 열매가 서울대교구 교구장님 자리에서 눈부시게 열릴 것이니, 하느님께서서는 영광을, 성모님께서서는 기쁨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 순례기 *

18일간의 숨바꼭질(7)

윤원조(예수마리아의 리드비나)/ 고성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아우슈비츠 · 십자가의 길

그 내용은 십이월 곧 아달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유대인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여 버리고 사유 재산을 몰수한다는 것이었다.(에스 3,13)

구약성경 에스테르기는 이천여 년 후의 유대인을 향한 폭력을 그대로 예견한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87년 쾰른에서 거행된, 에디트 슈타인 성녀의 시복식 제 1독서에서 에스테르의 호소는 에디트 슈타인 성녀의 기도로 연결된다.

“주님 저희 고난의 때에 당신 자신을 알리소서.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만물 위에 권능을 떨치시는 하느님, 절망에 빠진 이들의 소리를 귀여겨들으시어 악인들의 손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또한 이 두려움에서 저를 구하소서.” (에스 4,17)

성녀는 1938년 10월 31일자 편지에서 민족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에스테르 왕비를 상기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이의(유대인) 이름으로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금님 앞에 자기 민족을 옹호하려 나아가기 위해 들어 올려진 에스테르 왕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주 부족하고 무능한 에스테르입니다. 그러나 저를 선택하신 임금님은 무한히 위대하고 자비로우십니다.”

1933년 1월 30일, 히틀러는 수상이 되

고, 같은 해 4월, 유대인 배척 운동이 시작되었다. 7월 20일, 교황청과 히틀러 정부 사이에 정교 조약이 체결되고, ‘비오 11세는 히틀러와 타협했다’ 라고 후세인들은 기록하고 말하고 있다.

4월 7일, 비(非)아리아인들은 행정, 사법, 학교 등 모든 공직에서 추방당하고 그 해 여름학기부터 성녀는 교육학 연구소 강사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서구에서 유대인 박해의 역사는 깊다. 예수님 죽음에 얽힌 종교적 적대감이 뿌리 깊게 내리기 시작한 신약성경 이전, 바빌론 유배 때부터 시작된 유대인 박해와 혐오에 관한 장면들을 우리들은 구약성경에서 볼 수 있다. “그리스도가 만일 이 유대인 박해의 시대에 사셨다면 유대인인 그 자신이 박해받고 희생되셨을 것”이라는 성녀의 글을 통해서 해석해보아도 이 종교적 적대감은 그 기반이 미약하기만 할 뿐이다. 또, 선민의식 안에서 형성된 유대인들만의 정체성이 혐오를 강하게 키워왔다는 이면에는 어찌면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탐욕의 적절한 근거가 되었을 뿐일 수도 있다. 인류 역사 안에서 서유럽 열강들의 신대륙 발견과 함께 식민지를 만들어내던 500여 년 전부터 세계 1,2차 대전을 치른 근현대 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대학살이 자행되었지만 조직적이고 과학적으로 저질러진 유례 없는 학살은 2차 대전 나치에 의한 만행이다.

서유럽 국가 중에서 뒤늦게 통일을 이룬 독일은 서둘러 식민지를 만들지만 1차 대전 패전국으로 식민지를 잃게 되고, 승전국들에게 막대한 전쟁 보상금을 지불해야 함으로써 국가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른다. 뒤이어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대공황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어떠한 탈출구도 찾을 수 없었던 독일은 전쟁을 타개책으로 삼아 국민 단합을 꾀하게 된다.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야기된 자본주의에 대한 불신이나 반감은 민족사회주의로 결집되고 '혐오'의 감정을 조장하여 민족 단결을 위한 수단으로 삼은 나치는 유대인을 배척하는 조직적이고 잔인한 정책 실행에 돌입하게 된다.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성녀는 독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형제애와 애국심으로 수 개월간 전염병 전문 간호사로 봉사를 했었다. 히틀러의 정치적 야망을 모르는 성녀는 “제 유대인 친구 가운데 하나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지독한 미움에 이르렀는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덮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자서전, 윤주현 베네딕토 신부 옮김)

이와 맥락을 같이해서 성녀는 나치에 대한 유대인들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그 미움의 감정을 다시 호의적인 것으로 되돌리기 위해 '자서전' 집필을 결심한다.

“저는 단지 유대인들의 인간성에 대한 제 체험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자서전, 윤주현 베네딕토 신부 옮김)

그래서 히틀러의 유대인 정책에 맞선 성녀의 자서전 제목은 '어느 유대인 가정의 삶에 대해서'이다. 그러나 쾰른 가르멜

입회 몇 주 전에 쓰기 시작하여 에히트 가르멜로 옮긴 후에 마친 이 자서전은 나치 치하 가족의 안위를 걱정한 성녀의 부탁으로 생전에 출간되지 못하였고 1980년대 들어서 공식 출판되었다.

1935년, '뉘른베르크 법'이 제정되는데 이것은 독일 국민은 독일인의 피를 잇는 독일국 공민에 한한다는 것과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서 유대인의 선거권 및 공직에서의 박탈이 합법화되었다.

1937년, 교황 비오 11세는 '애타는 우려로'라는 회칙을 공표하여 나치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1938년, 국민 투표 당시 쾰른 가르멜 수녀원장이었던 레나타 포셀트 수녀는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다.

“ ‘총통에게 당신의 찬성표를’ 이라는 큰 글씨들이 수녀원이 있는 린덴탈의 뉘렌거리의 나무에 쓰여 있었습니다. ~ 에디트는 개인이나 공동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히틀러는 선출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수녀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히틀러는 하느님의 적이며 독일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이 그녀의 의견이었습니다.”

“주님은 내 생애를 모든 이들을 위한 제물로 받아들여 주셨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모든 이들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만 합니다.” (1938년 10월 31일 편지)

1939년 여름, 2차 대전이 발발하였다. 히틀러는 1940년 5월 네덜란드 침입, 프랑스, 벨기에를 포함한 서유럽의 넓은 지역을 점령하였고, 유대인은 누구나 황색 '다윗의 별' 모양의 배지를 착용해야 한

다는 경찰 명령이 집행되고 은밀하게 대학살이 시작되었다.

1942년 봄, 게슈타포로 호출을 받은 성녀와 로사 언니는 신분증에 유대인을 나타내는 'J' 자를 기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책을 당하고 겔웃에 노란별을 달아야 한다는 지시를 받는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기도에 덧붙여 진심으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941년 9월 편지)

1941년이 되자 동유럽 제국, 그리스, 러시아까지 침공, 전 유럽에 유대인 박해가 확대되고, 10월, 최초로 유대인을 동쪽으로 강제 이송하는 일이 실행된다.

1942년 1월, 유대인의 신체적 몰살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었다. 5월에 성녀는 한 장교로부터 쾰른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 폭격으로 성녀가 국경을 넘기 전에 들러 기도드렸던 ‘평화의 성모 마리아 성당’도 파괴된다. 7월, 네덜란드 주교단은 히틀러의 판무관에게 전보를 보내 강제 수송은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 중지할 것을 호소하지만, 이로부터 일주일만 지난 8월 2일 나치의 가톨릭에 대한 보복은 현실화된다. 히틀러의 판무관은 유대인을 최대의 적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조속히 동쪽으로 수송하겠다고 포고했다. 7월 28일 에디트 슈타인은 파울 큰오빠와 가족들, 그리고 프리다 언니가 강제 수용소에 잡혀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8월 2일 오후 다섯 시 저녁 성무일도를 드리고 있을 때 낯선 남자 둘이 찾아왔다. “슈타인 수녀는 5분 이내에 이 수녀원에서 나와야 합니다.”

친위대원이라고 신분을 밝힌 그들에 의해 에디트와 로사는 밖으로 나왔다. 에디트는 침착했지만 로사는 공포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이때 에디트는 로사의 손을 잡고 “자 갑시다, 언니. 우리들의 백성을 위하여……” 라고 아무 거리낌 없이 짧게 말하고 차에 올라탔다.

두 대의 경찰 수송 차량은 슈타인 자매를 네덜란드 아메르스포르트Amersfoort로 실어갔다. 8월 3일 새벽 3시였고 식사 제공도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독일 친위대원들에 의해 공동 막사, 바라크로 휩쓸려 들어갔다. 8월 4일 밤에 다시 집단 중계소인 네덜란드 최북단, 독일과의 국경 근처인 베스테르보르크Westerbork로 이송된다.

8월 7일 에디트와 로사를 실은 강제 이동 화물차는 베스테르보르크에서 아우슈비츠를 향해 출발한다.

“에디트 슈타인은 죽음의 열차를 탔다. 1942년 8월 7일 찌는 듯 더운 날 소 우리칸에 갇혀 독일과 당시 체코를 거쳐 아우슈비츠로 갔다. 개연성이 가장 큰 사실로서, 1942년 8월 9일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즉시 에디트 슈타인은 언니 로사 슈타인과 함께 독가스로 죽임을 당했다.”

1950년 네덜란드 관보에는 네덜란드에서 강제 이송된 모든 유대인 명단을 공표했다.

번호 44074 에디트 테레사 헤드비히 슈타인.
1891년 10월 12일 브레슬라우 출생,
에히트로부터.
1942년 8월 9일 사망.

- 예수께서 짊어지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과 연대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세상의 십자가를 끌어안기 위하여

투신하는 것은 그 헌신적 사랑으로써만이
세상의 폭력과 논리가 궁극적으로 타파되
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대한 선포는 예수를 따름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것은 고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십
자가에 계속 못 박지 못하도록 하는 사명
을 촉구하는 것이다. 인간과 함께 고난을
겪으시는 하느님은 사랑과 연대성 때문
에 가난한 이, 단죄받는 이, 십자가에 못 박
힌 이가 되셨다. 따라서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그분과 같은 사랑과 연대성
으로 억눌린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또
한 이러한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계 상황들이 변화되기를 바
라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
랑’으로 자신의 삶을 직면해야만 한다.
이것이 복음적 영성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십자가는 삶의 방식
이며 세상을 보는 시각이고 이 세상에서의
존재 방식인 것이다.

(그리스도 전통과 성녀 에디트 슈타인에
따른 ‘십자가 신비’, 박정오 신부 지음)

강복하소서, 주님!

고통 받는 이들의 찢어진 마음에,
인간들의 무거운 고독,
휴식 없는 실존, 누가 누구도 못 믿는 고통에.

아직도 당신은 저에게서
슬픔을 거두어 주시지 않습니다.
때때로 슬픔이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힘을 주시기에
저는 그것을 지니고 갑니다.

강복하소서, 주님!

이제 저의 잠에,
기억하소서, 당신 아드님이
죽음의 변민을 겪으셨음을.
평화를 주소서,
죽은 모든 이에게.

(에디트 슈타인)



여권사진을 위해 금역문 앞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

* 공동체 이야기 *

최초의 부산 가르멜 재속회



2021년 5월 종신서약식

안녕하세요. 부산 가르멜산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1982년 6월 28일 부산에서 제일 처음 창립된 공동체입니다. 아마도 전국에서 공동체 명칭이 가장 긴 공동체일 텐데요, 우리 회원들이 이 명칭에 갖는 애정은 말할 수 없이 크답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나긴 역사를 다 말하자면 거의 가르멜 재속회 전체의 중요한 역사가 되겠지만 처음 창립되었을 때만 해도 부산 유일의 재속회이기 때문에 따로 명칭이 필요하지도 않았던 모양입니다. 현재의 복된 명칭을 갖게 된 것은 창립 이후 무려 13년이나 지난 1995년 우리 공동체의 주보성인으로 ‘가르멜산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모심으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초 10명의 창립 회원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공동체는 점차 회원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1999년 일차적으로 부산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가 분리 창립되었고, 이어 2004년 부산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가 분리 창립되었으

며, 마지막으로 2009년 울산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가 분리 창립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축복받은 성소는 그 후로도 이어져 현재 100명 전후를 기록하며 아마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이 생활하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은 안평의 무척이나 아름다운 회관에서 안락하고 편리한 모임을 갖고 있지만 안평 회관을 얻기까지 공동체의 지난 난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맨 처음 시작은 현재의 밀양 가르멜 수녀원이 부산 부곡동에 있을 때 그곳 한 귀퉁이를 빌려서 공동체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2004년 수녀원이 밀양으로 옮겨가자 그때부터 우리 공동체의 기나긴 더부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망미동의 흰돌 실버타운의 공간을 매달 빌려 쓰다가 2006년 말 해운대 우동의 낡은 기숙사 건물을 매입하여 그곳을 임시적으로 전기와 하수만 겨우 손을 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의

매입 자금은 감사하게도 수녀원이 밀양으로 이사하면서, 그 전에 재속회원들이 수녀원 건물 일부 벽돌값을 봉헌해 주었다는 이유로, 상당한 거금을 우리 공동체에 기부하셨기 때문에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름만 근사한 우동 재속회관에서 여름이면 더위와, 겨울이면 추위와 맞서 싸우며 함께 지냈던 우리 회원들과의 갖가지 추억들은 돌이켜 생각하면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지만 그 당시의 고생과 불편은 필설로 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지요. 회원들이 조금씩 모은 회관 건립 기금으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자 해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우동의 이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묶이면서 아파트 건축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본격적으로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우리 공동체는 다시 오륜대의 순교자 성지의 성당을 매달 빌려 쓰는 방랑객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회관 건립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고 수년간의 노력 끝에 2017년 11월 마침내 현재의 안평 회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회관은 도로와 꽤 높은 담벽으로 경계를 이루며 전체 3층으로 지어진, 그해의 아름다운 건물 대상을 수상할 만큼 단순 검소하면서도 우아한 건축물입니다. 1층은 주차 공간과 북카페, 주방, 세탁실과 2개의 화장실이 있고 2층에는 성전과 2개의 화장실, 2개의 회의실, 2개의 교육방이 있으며 3층은 5개의 교육방과 사제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산의 3개 공동체가 월모임과 구역모임, 참사회의와 양성교육 등 다양한 용도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의 식구들과 재속회의 생활을 이야기할 차례군요.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로지만 근 2년간이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금은 오전 일정의 약식 월모임과 최대한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있어 공동체 생활의 활력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코로나 이전만 해도 우리 공동체는 유난히 활기 있고 가르멜의 모든 행사에 무척 적극적이었습니다. 매년 7월 16일 가르멜산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우리 공동체 주보 대축일에는 항상 버스를 대절하여 진동 가르멜 수도원의 대축일 미사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미사 전례를 주도하며 서투나마 성가대를 구성하여 미사곡과 화답송 및 특송을 준비하였습니다. 미사 후엔 거의 300명에 달하는 참석자들의 점심을 준비하였지요. 그 준비를 위해 봉사에 자원한 일부 자매 회원들은 그 전날 수도원에 미리 와서 식재료와 주방 도구들을 점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대화와 협의, 친교와 사랑은 나날이 자라고 깊어졌지요.

우리 공동체는 매년 10월에 공동체의 날 행사를 가졌는데 이때는 주로 수도원이나 수녀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주 멀게는 광주 수도원을 방문하기도 하고 성주 수도원, 밀양 수녀원, 고성 수녀원, 충주 수녀원 등을 방문하여 가르멜의 향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한 가르멜 가족의 정서를 함양하였습니다. 구역별로 연극이나 노래, 장기자랑을 곁들여 가르멜 안의 한 형제로서의 웃음과 기쁨과 친교의 행복을 다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매 회기 회장과 참사를 역임하셨던 참사회가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언제나 참사회가 먼저 가르멜 형제애의 모범을 보이며 회원들을 극진히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회원들이 항상 참사회에 순명하며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 모든 나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전 지구적 현상입니다. 이러한 쓰나미적 거대한 파도 앞에 재속회의 생활 역시 큰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재난이지요. 숨을 죽이고 고르며 언제 끝
날까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는 시간의 연속
이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재난 속에서 끈
질기게 인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위기는 한편 기회임

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외부적 장애로 힘
들고 어려울지라도 안간힘을 다해 당신의
뜻과 빛을 발견하려고 노력할 때 가르멜의
자녀들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시는 우리
가르멜산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
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륵대 순교자 성당 시절



2017년 11월 안평 회관 축복식 미사

* 회원의 글 *

나와 다른 너, 어제와 다른 내일

김순상(예수의 베로니카)/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한겨울 깊은 밤에 눈이 내려 온 세상을 품으면 고요하니 나도 깊은 잠을 자곤 한다. 요즈음은 코로나로 밤잠이 어수선해졌다. 예전처럼 꿀잠을 자기는 어렵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낮잠도 깜박 자고 밤에는 토끼잠, 벼룩잠으로 들락날락. 4번 자고 4번 허물을 벗는다는 누에처럼 자다 깨다 늦잠까지 잔다. 불면증은 생활습관, 환경적, 신체적, 심리적 요인이 원인이고 결과라는 것이 의학적인 설명이다. 나도 이 유행병에 걸린 모양이다. 집합 금지로 보고 싶은 손자를 옛적 동영상으로 보며 에너지를 얻는다. 첫 손자가 백일 즈음에 뒤집기를 한다. 수없이 많은 노력으로 연습을 되풀이한다. 하나, 둘, 셋하며 발로 방바닥을 짚 먹은 힘을 다해서 차며 그 반동으로 뒤집으니 이것 또한 하나의 지혜이다. 말은 못하지만 나름으로 터득하는 것이 참으로 신통하다. 그래서 우리는 박수를 치며 환호한다. 하나, 두울, 세엿... 온 힘을 다하여 뒤집기를 열심히 학습하는 녀석을 보며 나도 지난날을 숨바꼭질 해 본다.

나는 이웃 회원의 권유로 가르멜에 발을 들여 놓았다. “한번 가서 강의나 들어보세요.” 문을 열어준 골롬바는 내게는 축복이며 은인이었다. 시작이 반이었다.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느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예레미야서 29,13에서 말씀하신다. 처음 ‘글씨가 잘아서 못 보겠다.’ 하며 돌려준 「천주자비의 글」

도 성령께서 보여주시니 커다랗게 내 작은 눈으로 쏘옥 들어왔다. 아마도 주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제 마음을 살피신 듯. 흥미와 감탄으로 그 잘고 두꺼운 책 안으로 흐르는 시냇물처럼 손살같이 들어가 빠졌다.

그 시절, 생활계획표에 동그라미를 매번 그리고 하루하루 묵상하고 성인전을 읽어가며 새벽미사를 참례하고 무엇보다 선행을 하려고 노력했다. 마치 우리 손자가 뒤집기를 되풀이하듯이... 찾고, 묻고, 나누고, 기도할 때에 그분은 함께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사랑을 희망했다.

지난날이 되어 버린 어느 겨울, 혼자 된 둘째 오빠가 암으로 꽤 오래 투병하시기에 형제들과 친인척 20여 명의 가족을 집으로 모셨다. 음식점에서 간단히 하라고들 하셨지만 내 집에 모셔두기만 했던 나름 귀하고 고운 그릇으로, 병고에 시달리며 병원을 들락거리는 오빠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끼니 고여 드렸다. 모처럼 모두에게 작은 마음도 나누어 드렸다. 형제들과 함께한 뜻은 넘어가는 세월에 대한 나의 성의였을 터. 나누는 나는 마음이 참 고마웠다.

“둘 이상이 당신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태18,19)

그 후 둘째 오빠는 신구약 성경 필사 두 번을 끝으로 고단했지만 의미 있던 소풍길을 떠나 단풍으로 물든 가을밤, 주무시다가 하느님 품에 안기셨다. 성당과 자손에게 필사본을 한 권씩 선물하시고.

가족모임 다음 날, 먼 길 막내 여동생을 찾아 준 형제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화로 돌렸다. 그런데 언제나 용기를 주기보다는 “너는 왜...”, “너는 왜...” 하며 변함 없고 습관적인 말이,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나보다 7살 더 많은 큰언니가 전화를 받았다. 그날은 내가 애쓰고 대접했다는 교만 때문에 악마의 꼬임에 넘어갔다. 아님 젊은 시절 성당 반장할 때부터 알고 지내는 예쁘게 사시는 형님께서 막내 여동생이 대들었다고 꾸짖하시는 모습에서 나도 덩달아 고약한 올라미에 걸려들었다. 하여튼 덤벼들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둘째 오빠는 가끔씩 이야기하셨다. 큰 언니는 소주, 작은 언니는 맥주요 셋째로 막내딸인 나는 정종이라고. 칵테일 안 되는 것은 서로가 다름은 알지만 형제 중에 거의 끄트머리이기에 인격적인 존중이 쉽지 않은 까닭도 있을 듯.

유명세 있는 일부의 사람들은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남이 이해를 안 해주는 탓에 돌을 맞는단다.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바보란다. 우리 모두는 내 잘못도 상대에게 뒤집어 넘기는 현란한 말솜씨와 두꺼운 얼굴을 배워 가고 있다. 그러기에 유행되는 말이 있다. 我是他非(아시타비).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나와 너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중 잣대를 가진 세상의 인심 안으로 나도 모르게 젖어들었음을 성찰한다. 잔정이 많고 살뜰한 내 언니처럼 내 사랑 주님은 나보다 더 많이 슬프셨으리라. 서로 다름을 인정할 줄 모르는 내 탓으로!!!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겸손의 덕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나눔을 하고 실천하려 노력을 한다. 이렇게 아픈 담금질로 영적 잔병치레를 한다. 아름다운 추억

을 꼭꼭 씹으며 자랄한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을 높인다. 그리고 아픔은 품지 말고 벗고 씻어야 디딤돌 삼아 노년의 걸림돌인 치매를 건널 수 있으리라.

초등학교 6학년 때 세례를 받고 중·고등학교도 성당도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편이라 한때는 새벽미사를 열심히 다녔고 수녀님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 믿음의 끈으로 유리그릇처럼 깨질 것만 같았던 피폐함도 잘 넘기고 옛이야기처럼 말할 수 있으니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글을 쓰고 다듬으며 우리 가족의 피난시절 이야기보따리를 풀면서는 내가 정말로 형제간에 무심했던 것이 가슴에 와 닿는다. 특히 피난살이를 끝내고 서울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버지는 큰 수술을 하셨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집으로 오셔서 할머니가 눈물로 쏘아 놓으신 죽을 가지고 경무대(지금의 청와대)를 지나 삼청동 고개를 넘어 병원으로 나르시며 고달픈 간병을 시작하셨다. 약주(?)를 좋아하셨던 아버지의 병환은 그때가 시작이었다. 그럼에도 좋으셨던 부모님의 금슬은 서울 수복 후 굶이굶이 어려웠던 시절을 잘 이겨내는 힘이 되었다. 건강이 회복되신 아버지는 주말이면 광화문 동아일보 건너편의 국제극장에서 어머니와 즐겨 영화를 보시고는 센베이(누런 봉투에 넣어 팔던 그 옛날 과자. 김가루가 아닌 파래가루를 뿌린 부채꼴의 과자, 그리고 약간 딱딱하고 동그랗게 말린 생강과자)를 사 오셨다. 요 맛있는 과자를 기다리며 하품으로 잠을 쫓고 다독이며 함께하던 7남매. 특히 맏딸로서 집의 살림을 많이 거들었던 큰언니의 수고로움이 큰 울림으로 와 닿는다. 어린 동생들을 거느리고 돌보며 엄마의 마음으로 하는 단골소리의 흔적인 것을. 그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을 이제는 회한으로 남기 전에 잘 해드려야겠다는 뉘우

침으로 바꾸어 본다.

燈火可親(등화가친)의 가을을 제치고 여름 안에 몰래 숨어들어온 겨울. 불별더위에 속아서 알아채지 못한 겨울. 그리고 그 겨울이 몇 번을 지나고야 나는 살그머니 가버린 가을의 흔적들을 안아준다. 잠깐 보이고 마는 고추잠자리, 높고 푸른 하늘의 뭉게구름, 노랗게 물든 은행잎과 불타는 단풍, 색동옷으로 갈아입은 골짜구니, 한들한들 피어나는 코스모스를 어린 나의 고향처럼 생각하며 그리워한다. 어린 시절 고만고만하던 7남매. 다툼도 꽤나 했었다. 첫째와 막내 7번째가 아니라 바로 앞뒤의 형제자매의 몫이었다. 그 다툼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으리라. 떠나가신 오라버니가 그리도 생각나고 보고 싶다는 큰언니의 그리움과 아쉬움의 감수성을 어깨 너머로 배워본다.

그 시절 전쟁을 겪은 우리 국민들은 가난으로 어려웠지만 누구나가, 모두가 겪는 일이기에 불편하기는 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산다는 것만으로, 부족한 마음은 없었다. 둥글고 커다란 두레 반상 앞에 모여 앉아 도란도란. 사랑으로 마음을 그리고 가슴을 채웠다.

너나없이 대견하고 착했으니 나보다는 너를 더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보듬어 주던 시절이었다. 지나보니 그때는 몰랐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라우렌시오 수사님의 삶처럼 고단하지만 순수해서 버릴 데 없이, 양보하고 격려하고 더불어 겸손했던, 서로가 서로에게 하느님의 선물이고 꽃이 되었다는 것을.

부활의 라우렌시오 수사님은 파리 맨발 가르멜 수도원의 주방 수사로 구두 수선공이셨다. 엉망인 건강으로 疾風怒濤(질풍노도)의 삶을 사시며 하느님을 아주 깊이 체

험하셨으니, “주님은 저자거리에서도 만날 수 있고 냄비와 프라이팬 사이에서도 걸어 다니신다.”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정신과 하느님께의 사랑으로 양육되신 분이시다.

“지나치십니다.. 주님! 제게는 너무도 지나치십니다. 제발 이런 은혜와 위로는 죄인들이나 당신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셔서 당신을 섬기도록 이끄십시오. 저는 행복하게도 믿음으로 당신을 아오니, 제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렇듯 관대하신 당신의 손에서 그 무엇도 결코 거절해서는 안 되겠기에, 하느님, 제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다음 당신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것들을 당신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시기를 간청하오니, 제가 찾고 갈망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고 바로 당신이며 당신 이외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음을 당신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느님 현존수련 ‘부활의 라우렌시오 수사’ p80 참조】*

* 귀향의 노래 *

안인호 성삼의 마리스텔라 생애

안병희(아기예수의 쯤마)/ 서울 성 요셉 공동체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나뇨?”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났나니라.”

한여름 어둔 밤에 호롱불 밝히고 아낙네들이 모여 요리문답 외우기에 여념이 없는 천등산 박달재를 넘어 조용한 산속 마을이었다. 스무 살을 갓 넘은 어린 새댁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내밀고 구경을 하고 있었다. 유교의 엄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유교의 엄한 가정으로 결혼을 했기에 천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남들이 암송하는 요리문답과 십이 기도문 암송을 자랑으로 여기며 눈 파란 외국인 신부님 앞에서 참고를 하였다.

동족상잔의 그 악명 높은 육이오 전쟁은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신혼의 단꿈도 앗아 버리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로 새신랑은 나라에 불림을 받았다. 무사히 돌아오기를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신부에게 부모님 잘 모시고 있으면 건강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편지 한 통 남겼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비극은 어린 신부를 비켜 가지 않았으며, 잿 봉지 받아들고 찾은 곳... 원망도 하고 통곡을 하며 “천주님은 누구시냐고?”, “어찌 이런 기막힌 일을 허락하셨냐고?”, 천주님께 또 묻고 물었으며 십자가 앞에서 한 시간, 두 시간, 그렇게 시간은 매일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

주님은 영적으로 소중한 만남을 주셨는데, 대모님인 살로메 회장님과 아직 천주님을 모르는 지역에 선교를 떠나게 되었다. 괴산으로, 음성으로, 단양으로, 충주로, 곳곳으로 도시락을 싸들고 처음 교리문답을 배우던 때처럼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눈이 오면 목수건 칭칭 감고, 그때는 차도 흔하지 않은 때라 걸어서 천주님을 알리러 다녔다. 여름이면 들일 끝나고, 저녁엔 호롱불 밑에서 교리를 가르치고, 겨울이면 농한기라서 낮에도 교리를 가르치며 천주님을 알리기에 온 힘을 다하는 전교회장 일을 했다고 하셨다.

충주 지곡동 성당 옥 신부님은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배려해주셨기에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게 되었다고 하셨다. 메리놀회 소속인 옥 신부님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 구호 사업을 많이 하셨으며, 메리놀회 덕분에 구호 물품인 밀가루, 분유, 옷 등을 어려운 이웃을 찾아다니며 나누었다고 하셨다.

또한 교육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충주 성심 맹인 학교를 설립하셨다.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은 없어도 교육에는 깊은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그럴만한 교육 시설도 없고 장애인은 집안에만 가두어져 있는 상태가 많았다. 충주 성심 맹인 학교는 기숙 학교로 운영되었는데 기숙학교의 일을 아

눈시아따 선생님과 함께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맹인 아이 하나를 찾기 위하여 전국으로 수소문하고 무지한 부모를 설득하고 데리고 와서 교육하게 되었는데, 언제인가는 백령도에 맹인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는 길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이제는 정말 죽게 되었구나 하고 낙심할 때 일을 종종 얘기하셨다. 그때 정신을 가다듬어 김대건 신부님께서 마카오에서 돌아오시던 때를 기억하면서 기도했다고,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왜 믿음이 약하냐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야기도 해주셨다.

1973년도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옥 바울 신부님과 수안보 성당에 다시 맹인 학교 설립을 위해 기숙사를 짓고 수안보에 계셨을 때, 나는 시골에서 중학교 3학년 겨울 방학에 마리스텔라 고모 집에 놀러 가게 되었다. 율리안나라고 부르는 맹인 아이가 있었는데 키가 엄청 작아서 초등학교 3~4학년 정도로 보였다. 사실 아이라고 했지만, 그때 나이 벌써 서른이 넘었으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해 아이라고 불렀던 것 같다. 지금은 단독회원으로 계시는 아눈시아따 선생님과 재정을 담당하시던 마리스텔라 선생님의 지극한 사랑의 돌봄을 보게 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냄새 고소한 볏갓국을 끓이고 빵을 굽고, 정갈한 모습으로 아스

라한 언덕길을 올라서 새벽 미사를 율리안나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었다. 서리꽃이 곱게 핀 느티나무 나뭇 가지 위에 산까치가 울던 그 길을 어린 마음에 하느님 모시고 온다고 기뻐하며 뛰었다. 그 아침 식사가 끝나고 나면 율리안나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성인전 책을 읽어주셨다. 한순간도 주님께 눈을 떼지 않는다는 소화 데레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다. 3박 4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때의 기억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삶의 목표가 설정되었다.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아눈시아따 선생님이, 주님 안에서 맹인들과 살아가시고, 마리스텔라 선생님이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율리안나를 보살피는 모습은 살아계신 성모님의 모습을 보는 듯하였다.

마리스텔라님의 방은 수도원의 수방과 다름없었다. 십자가와 성모님을 모시고 늘 기도하는 모습은 언제나 하느님이 첫째 자리에 계셔서 미사참례와 기도가 우선이었다. 집안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도 그것은 두 번째의 일이었다. 할아버지 생신과 할머니 생신 때 오시면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새벽 시간에 십 리도 더 되는 먼 길을 새벽 미사에 다녀오시느라 생신상에는 안 계셨다. 성당에서 하느님 발치를 늘 바라보고 계셨던 마리스텔라님은 텔레비전 시간을 빼앗기면 하느님께 기도할 시간이 줄어든다고 평생 텔레비전을 집안에 두지 않으시고 성무일도의 아침 저녁기도는 물론 시간경까지 늘 바치셨다. 하느님의 현존과 성모님의 현존을 믿으시고, 기도드려야 할 사람의 명단이 성모상 앞에 놓여있었다. 성모상 앞에는 이름과 세례명이 쓰인 위에 십 원짜리 동전과 백 원짜리 동전이 여러 개 놓여있었는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 기억이 자꾸 가물가물해져” 라고 하시며 묵주기도 숫자를 세는 동전이라고 하

셔서 한참 웃었다.

늘 주님 앞에서 성체 조배를 하셔서 고모를 찾으려면 성당으로 가면 되었다. 마지막 거동도 성당에서 성체 조배를 하시다가 주님 앞에서 쓰러져 어느 분인지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러 오신 형제자매님 덕분에 병원으로 옮겨지셨다. 쓰러지신 후에는 말을 하지 못하셔서 어떤 분이 옮겨주셨는지 알지도 못하고 인사도 할 수 없었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마리스텔라 고모님 덕분에 우리는 그 완고한 유교 집안에서 영세를 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세례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눈물로 쓴 긴 두루마리 편지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놓으셨다. 하느님을 생각하며 평생 수절하며 산다는 내용과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자녀가 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기억난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팠는데” 라시며 말을 잇지 못하시던 할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보았다. 그 이후 할아버지는 베드로라는 본명으로 세례를 받으셨다. 할아버지한테 지극한 효자이셨던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영세하시기 전에는 성당에 가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도 영세하시고 엄마와 가족 모두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우리는 늘 마리스텔라님을 충주 고모라고 불렀다. 나에겐 고모가 세 분이신데 충주 고모가 제일 큰 고모이시고 나를 살뜰히 챙겨주시던 분이어서 결혼 후에도 남편과 가끔 충주에 고모를 만나러 갔다. 고모는 그때 충주 가르멜 수녀원에서 고모 말씀을 빌리자면 문지기를 하고 계셨다. 고모는 미리 준비하셨는지 우리 사모 데레사님의 완덕의 길, 천주자비의 글, 영혼의

성, 우리 사부님이신 십자가의 성 요한의 가르멜 산길, 어둔 밤, 영적 찬가, 무에의 추구, 소품집, 소화데레사 자서전, 공의회 문헌까지 보자기에 싸놓으시고 년 책을 좋아하잖아 하시면서 난 이제 눈도 어둡고 해서 네게 주련다 하시면서 건네주셨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러시고 고모는 다시 그 책을 새로 사셔서 밑줄까지 그으시면서 매일 노트 정리를 하며 읽으셨다. 그때는 가르멜도 모르고 그냥 고모가 주신 책이 전에 읽던 책과 내용이 색다르고 마음에 달아서 읽고 또 읽었다. 가르멜로 나를 부르기 위해서 고모가 서적을 먼저 주신 것임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마리스텔라 고모는 병석에 누워서도 내게 수많은 이야기를 하셨다. 하지만 언어에 마비가 와서 나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문병 오는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어 성호를 그으셨다. 3개월 누워계시는 동안 엄지와 검지를 잠시도 쉬지 않고 일정한 간격으로 비비고 계셔서 처음에는 병이 깊어 헛손질하고 계시는 줄 알았다. 하도 이상해서 “고모 지금 묵주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눈을 깜빡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폐에 물이 차서 호흡이 곤란해 허파에 판을 넣어 마지막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도 “고모 아파요?” 하고 물으면 언제나 고개를 저으시며 괜찮다고 하셨다. 다시 난 물었다. “예수님 십자가 고통 생각하며 기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냐고?” 마리스텔라님은 눈 한번 깜빡하시며 얼굴이 환해지셨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을 가다듬어 가르멜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신 마리스텔라님을 같은 길을 걷는 후배로서 존경합니다. 충주 가르멜 초대 회장님이셨다며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여러 번 오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 주신 충주 가르멜 회장님과 참사님들, 청주 가르멜 참사님과 회원님들, 충주 봉방동성당 신자와 레지오 단원님들, 기도해주신 아들 신부님들, 따님들, 서 요안나 선생님, 가타리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지상의 소풍 길이 외롭지 않으시고 그토록 원하신 하느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4)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고운 나의 님들이시여
당신들이 섬섬옥수 빛으신
백옥과 연분홍 청포도 빛깔
세상에서 가장 예쁜 화관 쓰고
지존하신 님 뵈러 가요

나에게 천사의 날개를
달아주신 내 고운 님들이여
벚꽃 터널 지나 산 모퉁이 진달래 싸리꽃
내 두 눈으로 보며
사뿐히 날고 있어요.

나의 친구요
나의 동생이요
나의 님들이시여
당신들 덕분에 예쁜 여정을
행복하게 살고 가요

너무도 고마운
나의 님들이시여
내가 먼저 하늘 궁전에서
기도하며 기다릴게요
하하 호호 다시 만나
못다 한 사랑얘기 나누어요

2019년 4월 15일 복사꽃 예쁜 날

4) 마리스텔라님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서울에서 충주 성당으로 마리스텔라님의 마지막 미사를 드리러 가면서 차 안에서 쓴 글입니다.

* 하느님의 포도밭 일기 *

선택하는 삶

박지현(성체성혈의 요셉피나)/ 서울 성 요셉 공동체

사극 옷소매 붉은 끝동. 난리다. 정조 역을 맡은 남자 배우가 잘생기고 연기를 잘해서 더 난리다. 눈만 감으면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는 타이틀이 펼쳐지면서 영조의 손자, 정조의 얼굴이 스친다. 나는 사극에 빠져버렸고, 그런 내 자신을 영혼의 성 1궁방에 비유하며 영적 상태를 판단하고 있었다. 통제할수록 남자 배우의 얼굴은 더 선명했고, 그의 눈길을 받는 궁녀 성덕임이 부럽기까지 했다. 내 본성적 만족과 영적 저항이 대립하는 내면의 움직임을 의식하면서 있는 그대로 허용해보았다. 신랑이신 주님만 바라본다며 가르멜의 정원, 즉 7궁방의 성안으로 입궐했다.

물론 나를 선택하신 분은 하느님이지만 그분의 초대에 응한 것은 나의 선택이었다. 극 중 세손을 좋아하는 나를 객관화시키는 순간, 뜻밖의 장면이 펼쳐졌다. 궁궐 안. 영조와 그 손자 정조가 있다. 아직 왕이 되지 않은 정조는 세손저하라 불리며,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그의 앞에 나타난 궁녀 성덕임의 존재. 역적으로 몰려 고생하다 궁궐로 입성, 임금의 눈에 들기 위해 애쓰던 궁녀들과는 달리, 자기만의 정체성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인이다. 선택받는 삶보다 선택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남달라 보인다.

임금의 관심을 받으면서도 아닌 척 밀당을 하는 모습, 더구나 그런 궁녀를 애뜻하게 바라보는 세손저하의 눈길엔 내 가슴이

심쿵, 내려앉는다. 그럴더라도 ‘이 분심은 옳지 않아. 가르멜인이 그것도 종신 서약까지 한 사람이, 한날 드라마에 마음을 뺏겨서야 되겠어?’ 누가 알면, ‘그것밖에 안되면서 우아한 척, 가면을 썼던 거야?’ 라고 할 것 같았다. “주님, 내일부턴 드라마 안 보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슬며시 휴대폰을 열어 옷소매 붉은 끝동을 클릭, 예고편을 보고야 만다.

기도 중 분심을 거두려는 찰나, 임금의 잘생긴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겹쳐 보였다. 빛처럼 강렬했던 깨달음. 눈에 보이는 임금의 사랑, 다른 궁녀와 다를 바 없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지존의 과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인간의 사랑도 이렇듯 깊고 애뜻한데,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하느님이신 우리의 임금님,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고 무한하실까?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사랑. 나 역시 그 궁녀처럼 어디서 뭘 하든 숨어 살피시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분, 뒤에서 내 목덜미를 바라보시며 나의 생각과 감정, 일상의 움직임을 다 주시하시는 분, 이렇듯 나를 사랑하시며 심쿵! 하셨을 주님의 눈빛과 미소가 연상되었다.

그것을 의식하니 어깨가 으쓱,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 그럴잖은가! 세상 진흙 구덩이에서 온갖 것에 매여 종살이로 살던 여인이, 임금이 사시는 궁성에 들어와, 수련을 받고 그분의 여인이 되었다. 그러기에 궁궐(가르멜 정원, 영혼의 성)에

초대된 가르멜인들은 임금님의 보호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정배들이다. '7백 명의 궁녀는 왕의 여인들이었다.' 라고 표현한 내레이션에 귀가 쫘긋했었다. 임금(정조)이 성덕임에게 보내는 그 따스하고도 사랑스러운 눈빛, 분명히 사랑이었다.

궁궐 안에서 키운 감귤 1개가 세손저하에게 상납 되던 날, 그것을 옷소매에 감춰 궁녀 성덕임에게 건넨다. 대단한 로맨스다. 임금의 마음을 알아차린 궁녀는, '저하가 나를 좋아한다.' 라고 혼잣말을 삼키고는, 미친한 궁녀가 감히 임금의 감귤을 받을 수 없다며 거절한다. 임금은 상처를 입고 민망해하며 한마디 한다. "내가 주면 순순히 받고 기뻐해라." 그녀는 왜 '감히?' 라는 말로 사랑을 외면했을까? 선택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거다.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며 말이다. 후궁이 되어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삶이 될까 봐, 임금의 청혼을 두 번이나 거절했지만 결국 후궁(의빈 성씨)이 되어, 선택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자신이 어떤 딸이었고, 어떤 궁인이었는지는 상관없다. 왕을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는 상관없다. 오로지 왕에게 얼마나 사랑받았는지가 생애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애초에 존재 이유가 그 정도였다는 뜻이!' (옷소매 붉은 끝동 원작 중에서)

비록 궁궐 안 궁녀로 살아가지만, 어디에 매이지 않고 새처럼 훨훨, 드넓은 세상을 날고 싶었던 그녀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화려한 새장에 갇히고 만 것이다. 궁녀들이 입은 저고리의 붉은 끝동은 왕의 여인임을 뜻한다. 이를 가르멜적인 용어로 바꿔보니, '옷소매 갈색 끝동' 이 되었다. 내가 선택한 가르멜의 삶. 성덕임

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 돕던 세손은, "너는 나의 사람이니까." 라는 말로 마음을 드러냈다. 그 대사를 들을 때마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연상되어 접촉감을 느꼈다.

허나 궁녀는, "궁녀에게도 스스로의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저하의 사람이지만 제 모든 것이 저하의 것은 아니옵니다." 라고 말한다. 사랑하지만 감히 그럴 수 없다며 자유를 선택한 그녀. 주님과 나의 모습을 비춰본다. '감히?' 라는 말로 주님의 사랑을 거절한 적이 있었나? 과분함에 '아니에요.' 라고 거짓 겸손을 가장한 적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주님, 주님' 입술로만 사랑하진 않았나? 그럼 주님께서도 극 중 임금처럼 상처를 받았을까?

아닐 것이다. 더 자유로운 삶을 위해, 당신에 대한 사랑마저도 종속적 관계가 아닌, 선택하는 사랑이 되길 바라셨을 터, '내가 너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으니 너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무조건 내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해야만 한다.' 이런 맹목적 사랑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 나는 그분의 사람이다. 세상에 하나뿐인 감귤을 궁녀에게 건넸던 임금의 사랑에 비길까? 극 중 두 남녀의 눈빛에 흘려 바라보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임금의 눈길보다 더 깊고 그윽한 주님의 눈길이 내 목덜미를 보고 계신다. 내가 선택한 사랑, 전부(全部, TODO)이신 그분이, 전무(全無, NADA)인 나를 보고 계신단 말이다.

"오! 주님, 당신이시군요." "아이고 네가 눈치를 챘구나. 썩스럽구먼." *

* 추모글 *

이상호 안드레아님을 기리며

서울 엘리야 공동체 참사회



2021년 11월 29일 가르멜의 큰 별이 떨어졌습니다. 평생 가르멜 영성을 몸소 실천하며 사셨던 형제님은 2016년 11월 단독회원이 된 후에도 회원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 고자 무던히 노력하셨습니다.

형제님은 경북 고등학교 시절에 은사의 권유로 대구 계산동 성당에서 영세를 받고 가족 중 처음으로 가톨릭에 입교하여, 그 후 가족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여동생은 가르멜 재속회원이 되셨습니다.

형제님이 가르멜과 인연을 맺은 것은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재속회원이셨던 어머니를 월모임에 모셔다 드리며 가끔 미사 반주를 하던 계기로 1993년 8월에 입회하여 1999년 11월 17일 종신서약을 하셨습니다.

이후 가르멜에서의 다양한 봉사과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초대 관구 의장직을 맡아 재

속회의 체계와 기반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셨고, 엘리야 신부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회칙 개정작업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가르멜 영성 원서 서적들을 번역하며 가르멜 영성 보급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또한 가르멜 최초로 신부님, 수녀님들을 모시고 한 달여간의 유럽 성지순례를 다녀오기도 하셨습니다.

형제님은 법학을 전공하시던 대학시절에도 남다른 음악 사랑으로 작곡 과목을 수강하기도 하셨습니다. 대학생 때에는 명동성당의 합창단원으로, 군 제대 후에는 성가대에서 지휘자로 활동하셨으며, 서울 경기 지역 가톨릭 “울바우 남성 합창단” 창립자로서 지휘도 맡으셨습니다. 가르멜에서도 가르멜 합창단을 이끌며 수도원의 종신 서원식, 사제 서품식 등에서 열정적으로 봉사해 주셨습니다.

성악도 잘 하셔서 멋지게 노래를 부르시던 형제님의 맑고 시원한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가장 가슴에 남는 것은 그분의 성품입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도 고집하는 것이 없으셨고, 돌아가신 지금 이 순간 그분이 남긴 것은 너무나도 담백하고 단순한 삶의 모습이십니다. 훌륭한 가정환경, 뛰어난 학력, 훌륭한 자녀들의 이야기를 평소 입 밖에 내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사셨음은, 성 요셉처럼 드러남 없이 조용히 신앙 안에서 봉사하며 살고 싶었던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느낍니다.

갑작스런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 곁을 떠난 형제님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한 회원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30여 년을 진정한 가르멜인으로 사셨던 안드레아 형제님의 영혼에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

* 회원의 글 *

침묵의 언어

이미들(부활의 데레사)/ 부산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온 인류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겪는
두려움과 고통과 많은 아픔들 속에서도
겨울비가 촉촉이 내리는 대림시기의 이 아침은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감성 충만한 시간을 가지게 한다

칠십을 앞에 둔 내 나이지만 이런 시간에
가끔씩 눈가에 맺히는 촉촉한 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굳이 무어라고 의식할 순 없지만
인생의 황혼기의 나에게 그동안의 삶의 여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과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의 조각들을 잘 꿰매고 다듬고 보듬어서
이 순간 잔잔한 행복과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음에
감사로움의 따뜻한 눈물임을 자각한다

이제 이 나이쯤은 삶의 열정은 식어가고
그동안 수고했던 내 몸의 불편함들로 조금씩은 의기소침하지만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공감하며 애착하지 않는
영혼의 자유로움으로 평화를 간직할 수 있음은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의 주 하느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은총과
신앙 안에서 그 분을 믿고 따르려는
나의 조그만 날갯짓과
부족하고 나약한 나의 믿음이지만
침묵 안에서 사랑의 불꽃으로 현존하시는
그 분과의 만남을 열망하는 소망 하나에 베풀어 주시는
축복임을 굳게 믿는다

새롭게 오시고
언젠가는 또 다시 오실 그 분과의 만남을 위해
무디어진 열정은 새롭게 불 밝히고
소란했던 마음들은 텅 빈 구유처럼 깨끗하게 비워
엄마를 믿고 의지하는 아가들처럼 단순하고 순수하게
생명으로 오시는 나의 주님을 맞이하고 싶다고
나의 영혼은 침묵의 언어, 뜨거운 눈물방울로 이야기 한다*

2022년 3월 구역모임

〈완덕의 길〉 영적 나눔

관구 참사회

*범위: 제33장 해설:

성체의 신비 앞에서 하는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청원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 당신이 하늘을 나는 새에게 양식을 거절하지 않으시듯 우리에게도 양식을 주십시오 청해야 한다. 성녀는 우리가 하느님께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실제로 청해야 한다는 통상적인 차원을 보았다. 하지만 성녀는 자신의 독자 수녀들을 즉각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고자 했다. 그것은 ‘영의 궁핍함’ 과 관련된 차원이다. 실체가 변모된 빵, 영혼의 빵, 즉 성체라 불리는 빵이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체를 필요로 하며 특히 그것이 매일, 아니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실제로 하느님 아버지께 왜 말씀드려야 하며 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지 하는 주제로 몰아갔다.

성녀는 이 주제를 33, 34, 35장에 걸쳐 설명했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장은 34장이다. 거기서 성녀는 어떻게 성체적인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내면화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33장은 마치 서막처럼 독자들을 성체의 신비와 삼위일체적 뿌리안으로 안내했다.

1. 주제의 서막: 33장

「주님의 기도」와 성체는 기도 수행자가 의지해야 하는 두 개의 기둥이다. 성녀는 우선, 간단한 교의적 성찰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아버지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는 이 이렇게 세 주체가 내포된 성체 신비에 대한 성녀의 신학적 초점이 표현되어 있다.

이어서 성녀는 교의적 성찰에서 생활한 기도로 옮겨갔다. 그것은 주님의 기도가 내포한 모든 청원들을 성부께 드리는 기도이다. 이제 여기서 데레사는 성찬례의 빵을 청하는 청원을 바탕으로 감동적인 기도가운데 성부께 향했다.

2. 신비로의 접근

1) 성체가 아니라면 우리가 성부의 뜻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라는 「주님의 기도」의 중심적인 청원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2) 성부 친히 우리에게 성찬례의 빵을 주신다. 성부께서는 성찬례에서 당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다. 이는 세상 끝날까지 인간들 사이에 당신의 현존을 연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빵은 우리의 뜻이 성부의 뜻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으로 변화시켜 주는 영혼의 양식이다.

3) 예수께서는 이 청원에서 성찬례의 빵을 선물로 주시도록 우리와 함께 성부께 청하신다. 즉 우리가 성부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자를 통해 성자와 함께 성부께 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그것은 우리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우리의 뜻을 내어 드리는 가운데 자기 자

신을 통째로 선물로 드리는 것은 어렵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체가 아니라면 이는 아예 불가능하다.

「주님의 기도」 안에 현존하신 예수께서는 우리가 성찬례의 빵을 청할 때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와 연대하신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성부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 주는 놀라운 수단을 찾은 분” 이시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이름 그리고 당신 형제들의 이름으로” 성부께 그 빵을 청하셨다. “이 선물이 영원하신 성부의 손으로부터 올 수 있도록” 분명히 원하셨다. 그분은 “다른 어느 기도에서보다 더 큰 것을 여기서 청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셨다” (1~2절).

성녀는 이 점을 상기하면서 예수님이 지니셨던 내면의 신비, 즉 주님께서 “우리 와 함께 머무시기로 결정하시면서” 당신 영혼 안에 교차했던 빛과 그늘, 지향과 동기에 매료됐다. “졸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아쉬움을 보시고 묘한 방안을 내시어...” (1절). “나는 아드님께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기도하신 것은 이 기도뿐이라는 것이 신기합니다” (4절). “나의 따님들이여,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을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4절).

3. 성부를 향한 외침 가운데 경탄하고 대담해짐

성녀가 보기에 인간사에 있어서 성체를 통한 그리스도의 극적인 현존만큼이나 강렬한 것은 없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성녀의 교의적인 설명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로 변화되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성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기도를 제시했다. 이러한 성녀의 외침은 본 장의 후반부(3b, 4, 5절)를 차지한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성부, 즉 두 분 사이를 중개하는 깊은 관계의 신비로 우리를 안내하는 첫 번째 자극을 접하

게 된다. 이어서 성녀는 성자를 통해 성부께 다음과 같이 신묘하게 중재기도를 드림을 볼 수 있다.

- “영원하신 성부여, 당신께선 어떻게 그것을 허락하셨는지요!”

- “당신의 자비하신 마음이 날이면 날마다 모욕당하는 그분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요!”

- “어떻게 그런 청을 받아들이셨는지요!”

- “아드님의 사랑일랑 눈감아 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채워 드리고, 우리를 돕는 일이라면 날마다 갈기갈기 찢겨져도 좋다 하실 아드님이십니다!”

- “어찌하여 우리는 모든 축복을 아드님을 희생시켜서 받아야 하옵는지?”

- “오, 하느님, 이토록 크신 아드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제겐 당치도 않습니다!”

- “아드님은 어찌하여 당신을 위해서는 말씀할 줄을 모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만 입을 여시옵는지? 이렇듯 사랑하오신 어린양을 위하여 말할 이가 그렇게도 없는지?” 또 다른 경우 성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이렇듯 부당한 것들을 말하면서 저는 여러 번 위로를 받곤 합니다.” 성녀는 여기서도 자신이 그분께는 부당함에도 여전히 그분으로부터 소중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께서 성찬례를 제정하시면서 그렇듯 사랑으로 가득 차 계셨다. 그래서 성녀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 아드님 앞에 아무것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렇듯 한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 번 성녀의 영혼에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성녀는 주님께 직접 이렇게 말했다. “보소서, 주여,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과 겸손이 당신께 있는 이상, 이제 당신 앞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7, 3).*

-가르멜 총서 3

“성녀 데레사와 함께하는 완덕의 길 묵상”에서 발췌

수도회 소식

사제서품식

허선형 어린양의 마리 도미니코 사비오 수사님의 사제서품식이 아래 일정으로 거행될 예정입니다. 사제로 서품되시는 사비오 수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2년 2월 11일 오후 2시
- 장소: 서울 가르멜 재속회관
- 주례: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 *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완료자 및 PCR 음성확인자(서품식 참석 48시간 이내 확인 문서 또는 메시지 수신자)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습니다.
- * 코로나로 제한된 인원만 참석하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가르멜 영성 특강 안내

지난 한해 가르멜 영성 특강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도 가르멜 수사님들의 가르멜 영성 특강이 있습니다.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날짜: 매월 둘째 금요일
(3월-12월, 8월 제외. 회관 사정으로 인해 3월은 3월 10일, 9월은 9월 16일입니다.)
- 시간: 강연 13:40 / 미사 15:30 (12시 40분부터 입실 가능)
- 접수 방법: 문자 사전접수 010-4149-1853 (신청양식: 영성특강/이름/세례명/연락처/본당)
- * 모든 분들께 열려 있는 무료 강연입니다. 본 특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르멜 수도회 젊은이 피정 프로그램 안내

	장소	일시	대상
서울 청년 피정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3층 경당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00-3:30	20-40세 청년 (기혼/미혼 무관, 신자/비신자 무관)
광주 젊은이 피정	가르멜 광주 수도원	매월 첫째 토-일	고등학생 이상(남자)

* 문의: 010-2140-7414

성시간

날짜	1월 29일
주제	소화 성녀 테레사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대한 봉헌
지도	신호준 하느님 사랑의 마리오 신부

- 매월 마지막 주(토) 오후 3시~ 4시 30분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대성당
(오후 2시 30분부터 개방)
- 영성강좌, 성시간, 미사.

첫토요 신심미사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대성당
- 매월 첫 토요일 10시 30분

2022년 영성코스 안내 (비대면)

과목 안내

- 3월 소화 데레사 영성의 근본 주제들 (정인숙 켈마 교수)
- 4월 예수의 데레사의 영성과 인간 이해 (윤주현 베네딕토 신부)
- 5월 예수의 데레사의 기도 영성 (박정오 프란치스코 신부)
- 6월 십자가의 성 요한의 소품집과 시 (이인섭 필립보네리 신부)
- 9월 십자가의 성 요한의 그리스도 체험 (김광서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10월 삼위일체의 성녀 엘리사벳의 그리스도 체험 (윤주현 베네딕토 신부)
- 11월 십자가의 성 요한의 영성과 인간 이해 (윤주현 베네딕토 신부)
- 12월 십자가의 성 요한의 화해와 기억의 정화 (이인섭 필립보네리 신부)

* 강사님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 및 수강료 안내

보다 많은 분들이 가르멜 영성을 들으실 기회를 드리고자 수강료를 인하했습니다.
2022년 전체: 500,000원 - 한 학기 신청: 250,000원 - 한 과목 신청: 75,000원

수강료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5-902-535574

(입금후 010-4149-1853/ 010-6305-5088 수강생 이름과 신청과목 문자 보내주세요)

- 예) 전체 과목 신청시: 흥길동 베드로. 전체. 이메일 주소
- 한 학기 신청시: 흥길동 베드로. 1학기. 이메일 주소
- 한 과목 신청시: 흥길동 베드로. 5월. 이메일 주소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영상 주소를 휴대폰 문자 혹은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 영성코스 과목의 모든 동영상은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 복제, 배포하거나 동영상 주소를 신청자 본인 아닌 타인에게 보내시면 안됩니다.

** 2021년 영성코스 과목 중에서 김광서 토마스 아퀴나스 수사님의 예수의 데레사의 그리스론을 2022년 상반기에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유튜브 “가르멜 수도회”에 업로드하겠습니다. 매달 4강좌씩 올라갑니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행 안내

찬미 예수님!

수도회를 위해 미사예물, 선교후원금, 후원금 등을 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부터 기부금 영수증(소득공제 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소득공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로만 할 수 있었지만 2022년부터는 소득공제 대상자의 휴대폰 번호로도 가능합니다. 단 소득공제 대상자의 휴대폰번호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 번호 등록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디, 간편인증서 등
 2. 상단 My홈택스 클릭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클릭 - 전자 기부금 영수증 클릭 - 휴대전화 번호 등록
- 전자 기부금 영수증은 1월 - 5월은 7월말에, 6월-9월은 10월말에, 10월-12월은 익년도 1월초에 국세청 홈택스에 업로드합니다.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010-6305-5088로 문자 연락 바랍니다.
 -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하기 힘든 분들은 종이 영수증도 함께 발행하므로 010-6305-5088로 문자, 전화 주시거나 각 공동체 총무참사님들에게 신청 바랍니다.

항상 가르멜 수도회를 위해 도와주시고 기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맨발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 가르멜 수도회)

미사신청: 우리 1005-402-642675,

* 미사지향은 문자 바람 (010-6305-5088 권영상 클레멘스)

가르멜 수도회 후원회:우리 1005-203-133071/ 농협 301- 0162-097461

중국선교 후원회:우리 1005-502-535564

성소 후원회:우리 1005-302-535558

홈페이지: [http:// www.carmel.kr](http://www.carmel.kr)

유튜브: 가르멜 수도회 영성센터

앱: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

재속회 소식

+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 이상호 예수의 안드레아

. 선종일: 2021년 11월 29일(향년 84세)

. 서울 성 엘리야 공동체

※관구 재속 가르멜회 3회기 의장

종신서약

* 마산 가르멜산 성모 공동체

. 날짜: 2021년 10월 20일

. 회원: 이영숙 예수마리아의 안나

박경하 예수의 크레센시아

금경축

* 서울 성 알베르토 공동체

- . 날짜: 2021년 11월 28일
- . 회원: 김정수 부활의 수산나



서울 성 알베르토 공동체 금경축

은경축

* 서울 성 알베르토 공동체

- . 날짜: 2021년 10월 24일
- . 회원: 허순 예수성심의 안젤라
이봉희 복되신 동정성모의 소피아



서울 성 알베르토 공동체 은경축

* 대전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날짜: 2021년 11월 26일
- . 회원: 정정한 가르멜의 안나
임영숙 예수의 분다
김순녀 성모성심의 마리아
박희정 예수성심의 소화데레사
김장옥 성모성심의 로사리아.



대전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은경축

* 광주 성 엘리야 공동체

- . 날짜: 2021년 11월 21일
- . 회원: 고재옥 가르멜산 성모의 엘리사



광주 성 엘리야 공동체 은경축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서울대교구 교구장 착좌를 축하드립니다



항상 성모님을 사랑시어
가르멜 수도자로서의 수도 현의도 마리아의 베드로로 이름을 정하신
정순택 주교님을 선택하신 영원의 하느님은 영원히 찬미 영광 받으소서

서울대교구 대주교님으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뜻밖의 하느님을 체험하신 그 놀라움과 감동, 감사와 감탄의 영성으로
이제는 잠시 가르멜산에서 내려오시어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하느님만이 영원하시다는
성녀 대 데레사의 영적인 가르침을
교구민들에게도 곱게 입혀 주시리라 믿습니다

젊은 날의 영향을 받으신 항상 즉시 기쁘게 응답하는
포콜라레 정신 또한 새롭게 이어가시면서
서울대교구의 다양한 사도직의 소임 한복판에서
모든 이의 모든 것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큰 일을 시작하시니
한국의 수도자들인 저희 모두가
신자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

(이해인 '기도의 축시' 중에서)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서울대교구장 착좌식 후 기념촬영
양상룡 도미니코 (선교) 신부님, 김형신 이냐시오 (관구장) 신부님



재속 가르멜회 서울 협의회 회장단 의정부 가르멜 수녀원 방문 기념



사랑은 (...)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1고린 13,7)

“기도 말고는 전 하느님께 드릴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 단식할 수 없어서 자선을 베풀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단식한다면) 일할 수 없게 되겠지요.
 제게 남아있는 것이라곤 그저 기도하고 고통을 견디는 것뿐입니다.
 그렇게나 엄청난 보화가 제게 있었는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 성 라파엘 칼리노프스키 (1835~1907) -

* 성인께서는 가르멜 수도자로서의 수도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젊은 시절 조국인 폴란드의 독립을 위해 제정 러시아의 압제에 맞서서 활동하셨음. 그러다 주동자로 체포되어 10년간 시베리아 강제 노동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었는데, 위 글은 그 당시에 적은 편지 일부임.